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2014 11



VOL. 221
haninnewsih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GALAXY Note 3 + Gear

DESIGN YOUR LIFE



*Life is a journey of creation.
Make your mark.*

Available in two colors:



Samsung GALAXY Note 3 + Gear

- Featuring the latest technology of Android 4.3 (Jelly Bean)
- Superior performance with 1.9 GHz Quadcore + 1.3 GHz Quadcore
- Crystal clear display with 5.7" HD Super AMOLED
- Multitask easily with new S Pen and Multi Window features
- Exclusive design with premium back cover

Customer service & contact center: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SamsungMobileIndonesia @Samsung_ID | www.samsung.com/id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구간	편명	출발	도착	요일	
자카르타	인천	KE628	2205	0655 ⁺	매일
		KE626	0755	1655	월,목,일
인천	서울	KE627	1535	2040	매일
		KE625	1920	0040 ⁺	수,토,일

* 대한항공은 덴파사르에서 인천까지 매일 운항합니다.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a Korean Air office closest to you
 Jakarta : 62-21-521-2180



함께하면
더 행복!

언제나 힘이 되는
튼튼한 친구처럼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내일
롯데쇼핑 에비뉴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Lotte Shopping Avenue
Brand Ambassador
(Girls' Generation)



MVG 멤버스 혜택

MVG 멤버스만의 특별한 자부심을 선사합니다



- MVG 고객 대상 매월 특별 이벤트 혜택 제공
- MVG 라운지 운영 및 MVG 스페셜 서비스 제공

LOVE 뷰티클럽



- 화장품 10% 할인 쿠폰 증정
 - 무료 스킨케어 쿠폰 증정
 - 무료 브러쉬 키트 증정
- * 단, 신규가입고객 1,000명에 한함

LOVE 키즈클럽



- 무료 기프트 증정 (생일 기프트 포함)
- 어린이 교육센터 운영

연말 고객 사은 행사 TOP SPENDER

기간 내 누적 구매 금액에 따라
삼성 커브드 UHD TV 55" H8000,
최고 Rp. 3,000,000의 롯데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TOP 3
구매 고객



누적 구매 금액	롯데 상품권
IDR 30Mio	IDR 1Mio
IDR 40Mio	IDR 2Mio
IDR 50Mio	IDR 3Mio

- 이벤트 기간 :
2014년 11월1일~12월31일
- 이벤트 대상
롯데 쇼핑 에비뉴
MVG & VIP 멤버스 한정

SAMSUNG Samsung Curved UHD TV

FASHION BAZAAR

THE K-POP
PROJECT
A CURATED KOREAN CONCEPT STORE

K-POP스타일룩 상품판매 • K.AFE 코리아 콘셉트 카페 (2014년 10월 16일 ~)

FEATURING K-FASHION BRANDS

PENNANT • KYE • DIM.E.CRES • ROCKET X LUNCH • BETWEEN A&B • YUURT

최대
80% off

MAP
Mitra Adiperkasa

Brands (2014년 10월 27일 ~ 11월 16일)

NEXT, Suite Blanco, Topshop, Lacoste, BCBG, Max Mara, Swatch, Diva, and many more

최대
70% off

POLO RALPH LAUREN

(2014년 10월 20일 ~ 11월 30일)

EVENT (8 ~ 16 NOV 2014)

페인팅 & 피아노 콜라보레이션



잭슨베 & 한나신의 피아노 리사이틀 및 아트 퍼포밍
11월29일(토)~ 12월7일(일)

united dance works



11월 8일(토)~9일(일)
11월 16일(일)

2014 퍼포먼스 인도 비트박스



11월 8일(토)~9일(일)
11월 16일(일)



2014년 5월부터 추가 30만 족 캐파 증설 1,2 사업부 월생산200만 족



제 1 사업부

- 총면적: 약 17 헥타르 [건물 약 9헥타르]
- 생산라인: 47개 제조라인 [120만족/월]
- 종업원수: 10,800명 [한국관리자22명]

adidas
GROUP



- 전세계오더: 2억4천만
- 인도네시아: 약6천 3백만 족[26%]
- 총 수출국가: 30개국
- 연간생산량: 1천5백만 족



- 전세계오더: 7천2백만 족
- 인도네시아: 약1천5백만 족[21%]
- 총 수출국가: 18개국
- 연간생산량: 5백5십만 족



제 2 사업부

- 총면적: 약13헥타르 [건물약5헥타르]
- 생산라인: 28개 제조라인 [70만족/월]
- 종업원수: 4,200명[한국관리자15명]

“관심을 집중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지식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한다”

Happy New Year!

주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Korean Association
in the Republic of Indonesia



 Kita Bersahabat 

KOREA-INDONESIA Friendship Festival 한-인도네시아 우정의 페스티벌

한-인도네시아 두 나라 젊은 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

2014년 12월 20일(토) 오후 3시 30분

Balai Kartini 발라이 가르띠니 공연장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1973년 대사관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40여년 간의 우호협력을 토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호혜적으로 내실 있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관계를 기반으로 두 나라의 우정과 양국 젊은이들의 미래를 격려하는 첫 번째 페스티벌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한인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한 해를 뜻 깊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15
HAPPY NEW YEAR!

- 일시·장소** 2014년 12월 20일(토) 15:30~ 20:30
Balai Kartini 공연장
- 행사안내** Section 1 : 전시와 공연 15:30~ 17:00
Section 2 : 우정의 공연
Section 3 : Dinner (한국과 인도네시아 음식)
Section 4 : 뮤지컬 점프 (특별초청공연)
- 예매처** 한인회 사무국 : 021) 521- 2515
판매가 : Rp. 200,000 / 매

후원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HONORARY CULTURAL CENTER

KOREA TOURISM ORGANIZATION
www.kto.or.kr

aT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신 기 업 배상

차례..... 8

이모저모 한인사회.....10

논설위원 칼럼 /이돌 아드하와 경호실

2014 세계한인회장대회

한- 아세안 대화관계 25주년 축하 리셉션

대한민국 해군 순항 훈련전단 인도네시아 입항

기업탐방- PT. PARKLAND

포스코, 인도네시아에 사회적 기업 설립

한-인니 보라매 공동체계 개발 기본 합의서 체결

2014 한-인니 문화의 달

제15회 인도네시아 한인 미협전

제5회 루시 플라워회 회원전



국회의사당 Gedung MPR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dqdoodle

지난 10월은 많은 공연과 전시, 모임들로 분주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산다고해도
다른 시간을 살아 온 사람들과
공감하고, 공유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살고 있지만
감정을 통하며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절기를 지내고 있지만 나만의 날씨가 있듯이..

침묵하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침묵으로 대하고,
자기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에만
예술은 속삭일 뿐이라고.. 누군가 말했지만,
어디 예술 뿐 이것습니까?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제2회 종합예술제 전야제	11월의 행복에세이 <서미숙>.....46
제2회 종합예술제	
KOWIN 정기총회	멘뎡, 찌끼니 탐방수기.....49
전국체육대회, 인니선수단 출정식	
6.25행사 감상문 공모 시상식	Jalan-Jalan Jakarta /
KOICA, 따갈라르 교육정보센터 개원식	오아시스 레스토랑<사공경>.....52
아시아나, 태양광가로등 설립 준공식	
농협사료, 인니 타피오카 가공공장인수	인도네시아 약용식물/ 시르삭
제14회 한-인니 상생포럼	<백진협>.....54
자카르타 패션위크	
2014 인니 실업고교 외국어 경시대회	법률해설/ 부동산 양도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인도네시아 국제 도서 박람회	<이승민>.....56
아름다운 동행	
JIKS소식	건강상식.....59
JIS소식	
10월 경제브리핑 42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60
내 마음의 뜰 / 그때 우리는 맨몸이었으나	화 도 소62
<시:박정자>.....45	생활정보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신기엽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운환
 편집장 : 홍석영 / 편집위원 : 김재민, 최양기, 엄종한, 황윤홍 /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 아드하와 경호실

김문환/논설위원

지난 10월 5일 이슬람계는 ‘이들 피뜨리(Idul Fitri)’ 다음으로 큰 명절인 ‘이들 아드하(Idul Adha)’를 맞이하였다. 자카르타 중심부에 위치한 이스떡랄 대사원에는 퇴임을 앞둔 유도요노 대통령부부, 부디요노 부통령부부도 대통령궁에서의 마지막 행사를 가졌다. 하사누딘 시나가 주임 설교사는 자신의 교시에서 인종,종족,종교에 상관없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화합하기를 기원하였다, 그런데 노년층이나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인이라면 50년 전 이날의 악몽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1962년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 대통령궁에 몰려 들었다. 이례적으로 이날은 대통령궁이 개방되어 수카르노를 비롯한 일반시민들이 함께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 한창 식이 진

행 중이던 도중 군중 속에서 갑자기 세발의 총성이 울렸다. 그 총구는 바로 앞자리에 앉아있는 수카르노를 향한 총구였다. 경호원의 민첩한 방어로 위기를 모면하였지만 국가원수의 목숨이 백척간두에 몰린 상황이었다.

바로 5년 전 학부모 자격으로 바자회에 참석한 찌끼니 초등학교에서 자행된 6발의 수류탄 투척사건으로 10명의 어린이가 희생되고 생사고비를 넘긴 이래 대통령이 또 한번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는 순간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부 최고위층인 나수띠온 국군총참모장은 경호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1963년 대통령의 탄신일인 6월 6일 3,000여명으로 구성된 대통령경호실이 창설되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짜끄라비라와’라는 산스크리트어원



으로 정하였으며, 사부르 대령이 경호실장에 임명되었다. 육해공군에서 차출된 정예요원 200여명은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지키는 경호대대에 소속되었다. 이 경호대대 구성원은 대통령과 동향, 또는 신원이 확실한 측근으로만 구성되었다. 초대 경호대대장에 보임된 운똥 삼수리 중령은 불과 1년 전 베니 무르다니 소령과 함께 서부 파푸아해방 군사작전에 특공대로 낙하하였던 ‘전쟁영웅’이었다.

의상을 입은 고교생급 남녀 50쌍으로 구성된 100명의 들러리가 등장하였다. 그런데 이 단체 소속 단원 중 두 명씩이나 대통령의 동반자가 되어 대통령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지켰다는 점이며, 두 번째로는 바로 경호대대장인 운똥 삼수리 중령은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 역사의 최대 변곡점인 된 ‘9.30 공산쿠데타사건’의 주역이 되었다는 점이다. 1965년 10월 1일 아침 7시 국영라디오 방송을 타고 흘러나온 혁명공약 제1호를 발표한 당사자가 바로 혁명평의회 의장으로 변신한 운똥 중령이었다. 일일 천하로 끝난 쿠데타는 수 많은 관련자들을 사형장, 또는 감옥으로 몰아 넣었으며 그 이듬해까지 전국적으로 40만명에서 100만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는 비극을 만들면서 수하르토 32년 장기 집권의 원동력이 된 공포정치의 구실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호실은 바로 인도네시아 현대사의 큰 물줄기를 바꿔놓은 계기가 되고 말았다. 첫째는 경호실에 소속된 단위 중에 외국국가원수, 또는 귀빈이 방문하거나 국가의 중요의전 행사 시에 종족별 민속



Untung Syamsuri



지난 10월 중순, 조꼬위 대통령 당선자는 안디카 빠르까사 준장을 소장으로 승진시켜 경호실장에 임명하였다. 그는 조꼬위 정부의 군부인맥 좌장격인 헨드로쁘리요노 전 국정원장의 사위이기도 하다. 헨드로쁘리요노 장군은 1996년 자카르타지역사령관 재직 시, 메가와띠가 인도네시아 민주당(PDI) 당수에 등극할 당시, 이를 저지하지 않고 방관하였다는 이유로 한직으로 물러나며 좌천되었던 전력이다. 베니 무르다니 군부인맥의 한 축

인도네시아 정치사는 수하르또 군부정권 붕괴 이후 외관적으로는 문민정부로의 이관이 가시화 되어 왔으나 그 저변에는 아직 군부정치의 잔재가 남아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인권문제’를 놓고 양 진영이 충돌할 당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룹이 바로 헨드로쁘리요노, 루훗 빠자이판, 위란또 등의 군부세력이었으며, 이에 맞서 빠라보위 진영도 유누스 요스피아 등 전직 특전사 고위장성들을 내세워 치열한 대리전을 치른 바 있다.



Andika Perkasa

Hendropriyono

으로써 미래의 ‘참모총장감’으로 점지되어 왔던 유망주가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2002년 메가와띠가 대통령에 등극하자 희생자였던 헨드로 장군은 전화위복의 기회를 맞아 국정원장을 역임하며 현재까지 메가와띠와 정치행보를 함께하고 있다.

조꼬위가 지난 8월 당선인으로 확정되었을 당시, 이에 상응하는 경호가 실시되자, 조꼬위는 대중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평을 하며 규모를 축소하여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 조꼬위의 친서민적 행보 탓인지, 취임식 당일 저녁 모나스 광장에서 펼쳐진 축하공연 때, 군중 속으로 파고 들며 수많은 사람과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한국의 경호 매뉴얼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점을 볼 수 있었다. 1974년 육영수 저격사건 직후, 박종규 실장이 물러나고 경호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과정에 문, 민 조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야전에서 복무중인 학군단 출신 장교들을 차출하여 경호실 요원으로 일부 보임한 것은 바로 필자가 군복무 할 당시 우리 동료들의 이야기이다. 새삼스레 40년 전의 사건들을 거론하는 것은, 지난 10월 25일 ‘대한민국 ROTC 동남아총연합회 창립대회’ 참석차 자카르타를 방문한 중앙회 회장 및 간부 몇몇이 바로 그 당시의 당사자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4 세계한인 회장대회 "자랑스러운 세계한인,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80개국 출신 한인 회장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세계한인회장대회'가 개최되었다.



10월 7일 개최된 개회식은 '제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도 겸해 열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정당·정부 관계자 등 총 800여명이 참석했으며,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처럼 우리 한인 동포사회가 크게 발전해 오기까지 우리 동포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알고 있다.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확충, 700만 재외동포들의 저력과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한편 각 국가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마인드와 뛰어난 역량을 갖춘 동포 인재들이 고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늘려 동포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한인회장들을 격려했다.

10월 8일에는 북미, 유럽, 아중동, 일본, 중남미, 러시아·CIS, 중국, 아시아, 대양주 등 9개 지역으로 나뉘어 진행된 지역 분과 주제 토론을 통해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주요 정당 초청 재외동포 정책 포럼과 정부와의 대화 등의 순서를 통해 모국과의 동반 성장 방안을 토론했다.

이날 오전 지역별 주제를 발표하는 전체 회의가 끝난 직후, 대회 공동의장인 이동우 대양주총연회장이 발표한 결의문은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 위한 정부 노력 지지 △모국경제 재도약 위한 창조경제 활성화에 능동적 참여 △세계·재외선거·병역·의료·복수국적확대 등 각종 제도개선과 법률정비 요청 △차세대 민족정체성 함양 위한 정부지원 확대 요청 △재외동포재단

제주 이전 반대 △거주국 내 재외동포 권익신장 및 소통·화합 노력 등을 담고 있다.

신기업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은 개막식에 참석한 후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세계 한류의 날 추진본부 집행위원장), 윤여진 시사원 대표(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이연상 몽골한인회장, 하성철 베를린한인회장, 유제현 재독한인총회장 등과 만나 한인회 운영과 정부에 대한 요청 사항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한인회장들은 "국제청 등에서 자본금이 많은 한인기업들을 표적 조사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한인기업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데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한인기업들의 애로점을 취재를 통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 7일 오전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신기업 인도네시아한인회장(가운데), 이연상 몽골한인회장(왼쪽 첫 번째) 등 한인회장들과 김철관 세계 한류의 날 추진본부 집행위원장(왼쪽 두 번째,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 재인니 발리한인회(회장 장병록)가 '자랑스런 한인회'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축하 리셉션

11.4(화) 자카르타 켐핀스키 호텔에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 기념 리셉션’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주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가 개최하는 것으로, 자카르타에 주재하는 각국 아세안대사를 비롯한 외교단, 아세안사무국, 인도네시아 정·재계 주요 인사, 한인회 등이 참석하였다.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아세안은 많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대상 지역이자, 제2의 교역파트너로 성장해 왔다.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를 비롯한 한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도 아세안으로 서로의 관계가 더욱 돈독히 발전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수립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올 한해 각국 수도에서 각종 축하행사를 줄지어 개최해 왔으며, 이러한 축하연의 마무리는 12월 11-12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세안의 중심인 인도네시아, 아세안사무국이 위치하고 있는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이번 리셉션은 그간 개최된 행사들의 대미를 장식하는 클라이막스로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부산에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축제의 전야제가 됐다. 한편 리셉션 후에는 이루, 마야 등 한국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다.





"대한민국해군 순항훈련전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입항"

대한민국해군 순항훈련전단(전단장 준장 천정수)은 2일(일) 오전 10시경 조태영 주 인도네시아 대사, 신기엽 한인회회장, 아국 두위 와후(Aguk Dwi Wahyu) 자카르타 지역방어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과 교민들의 환영 속에 입항했다.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 이어 다섯 번째 기항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3박 4일간 일정으로 방문했다.

이번 순항훈련에는 해군사관학교 제69기 사관생도 140여명을 포함한 장병 총 650여명이 참가 중이며, 참가전력은 한국형 구축함 최영함(DDH-II, 4,400톤급)과 군수지원함 천지함(AOE, 4,200톤급) 등 2척이다.

1954년 이래 올해로 61회째를 맞이한 해군 순항훈련은 내년 3월 임관을 앞둔 해군사관생도들이 장차 장교로서 필요한 군사 전문지식과 실무적응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으로써 미국령 괌을 시작으로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2개국을 방문하며 총 96일간 20,240NM(37,500km)을 항해한다.

인도네시아 입항기간 동안 시민들을 위한 함정공개행사를 실시하며, 이때 '기적의 대한민국 발전상' 사진전과 함께 함정에 설치된 방산홍보전시관을 통해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릴 예정인 인도네시아 국제방산전시회 행사에 앞서 한국의 우수한 국산 방산기술을 선보였다.



또한, 순항훈련전단 공연팀의 인도네시아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연도 펼쳐졌다. 입항 첫날인 11월 2일(일) 오후 4시 30분에는 롯데 에비뉴 Main Atrium에서, 그리고 11월 4일(화) 오후 2시에는 스나얀 실내체육관에서 군악대 연주, 사물놀이, 의장대·태권도 시범, K-POP 등으로 구성된 순항훈련전단 공연팀의 문화공연이 펼쳐져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렸다.

순항훈련전단은 양국의 친선 교류에 힘쓰는 한인회에 한국도서 400권을 기증했다.

순항훈련전단장 천정수 제독(준장)은 "인도네시아 방문기간 동안 함정 공개행사, 문화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우호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대한민국해군 순항훈련전단은 5일(수) 3박 4일간의 인도네시아 방문일정을 마치고 여섯 번째 기항지인 스리랑카 콜롬보로 출항했다.



▲ 11월4일, 인도네시아 밥퍼 사역봉사에 참여한 해군생도 22명



기업탐방

PT. PARKLAND WORLD INDONESIA



대표 신만기

파크랜드 인도네시아 신발 사업부는

2006년 2월, 아디다스 브랜드를 첫 생산 시작하여 현재는 뉴발란스를 포함 2개 브랜드와 2개의 공장으로 월간 2백1십만족, 연간 약 3천만족을 생산하며,종업원 약 1만7천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현지체제화로 타사에 비해 적은 한국인과 주요공정에 현지인 관리자를 두고 있습니다. 총 한국인 근무자는 40명으로 이중 10명은 갓 졸업한 20대 젊은 청년으로, 신발산업의 명맥과 기술전수를 위해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아울러 첨단 자동화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성 2배 향상을 목표로 가격경쟁력을 우위를 점하여 바이어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당사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크랜드는 세계최초로 신발 자동화에 성공을 하여 총 9개 자동화라인을 구비하고 있으며 현재 2배 이상의 생산성을 가지고 라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동화 라인은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으며 우리는 이런 자동화 생산 라인의 확대만이 신발 제조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장기적인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창의력을 가진 인재 육성과 서로 다른 분야의 선진 기술을 융합하여 미래 자동화 신발 제조업을 리드 해 나갈 것입니다.



11월7일, PT.PARKLAND(세랑 반튼소재)는 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한인회(회장 신기엽), 코참을 초청하여 공장견학의 기회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파크랜드 공장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는 자동화라인 관리체계구축에 박수를 보냈다.





코이카, 포스코와 손잡고 인도네시아에 사회적 기업 설립

정 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는 11월 4일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찰레곤(Cilegon)에서 “찰레곤시 고용촉진을 통한 지역 자립기반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을 알리는 현판식을 가졌다. 금번 현판식에는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박영식 공사, 포스코 이영훈 부사장,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소장 및 포스코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포스코는 올해 1월 외국 기업으로서 가장 큰 규모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며 설립한 동남아시아 최초 일관제철소를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철소가 소재해 있는 찰레곤에 대규모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은 매우 빈곤하고 낙후되어 주민들의 교육수준이 낮고 노동의욕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노동력이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기업의 지역 고용창출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포스코가 제철소를 설립하고 채용인원의 70% 이상을 지역에서 선발하기로 했지만, 채용 조건을 갖춘 인력이 적어 인력 확보에 곤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스코와 코이카가 손을 잡

고 향후 3년간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동 사업으로 설립되는 사회적 기업은 포스코의 공장 내 필요 작업을 수행하는 용역 회사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되며, 인근 마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정하게 회사를 운영토록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청년층을 중심으로 가난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인력개발센터도 함께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기초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단순노무직이 아니라 향후 기술직으로 보다 나은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뿐 아니라 회사 운영의 방향과 조직도 정비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치 개발역량을 향상시키며, 회사 운영에서 창출된 이윤을 다시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였다.

동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현지 공장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 양성, 창업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 등을 통하여 낙후 지역 개발, 직업 창출, 현지 산업 발전, 지역기반산업 육성 등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코이카와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및 역량이 시너지를 내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민관협력의 우수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도네시아 보라매 공동체계개발 기본합의서 체결

- 보라매(KF-X)사업 국제공동개발 순항 -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10월 6일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수라바야에서 한국형전투기 공동체계개발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체결하였다.

이번 합의서는, 지난 2010년 7월 체결한 한·인니 전투기 공동개발 양해각서(MOU)에 따라 공동체계개발 사업구도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양국간 비용 및 업무분담에 관한 기준을 정의하기 위한 합의서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 있었던 공동 탐색개발 이후 체계개발 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 올해 인니 국방부와 5차례 협상을 통해, 공동체계개발에 필요한 기본조건, 비용분담 및 업무분담 기준 등을 합의하였다.

보라매사업 체계개발은 국내업체가 주도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개발비용의 20%를 분담하고, 국내 개발주관업체와 인도네시아 업체가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한·인니 정부인원이 참여



하는 공동사업관리조직(JPMO)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 JPMO : Joint Program Management Office

이번 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설계, 시제기 제작, 시험평가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투기 공동개발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양국의 항공산업 발전과 수출시장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측은 방위사업청,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양국의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 * 합의서 체결 대표 :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공군 준장 정광선) -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비전력총국장(팀블 시아한)
- 한국 배석 인사 : 주인니 대사(조태영)
- 인도네시아 배석 인사 : 국방장관(뿌르노모 유스기안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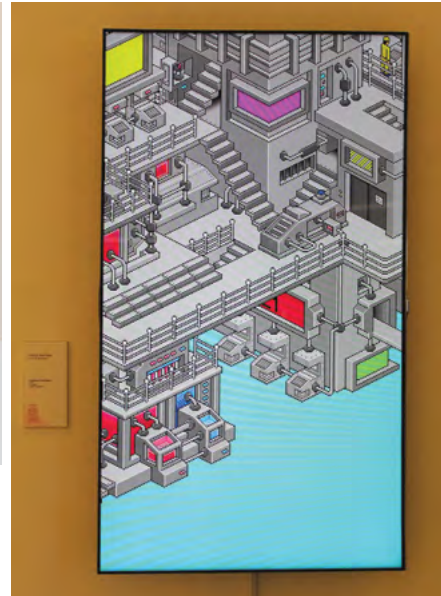
2014 한-인도네시아 문화의 달

‘2014 한-인니 문화의 달’ 축제가 3일 자카르타에서 개막됐다. 이날 카르티니 회관에서 열린 ‘한-인니 문화의 밤’에서 ‘페인터즈: 히어로’가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자카르타에서 3일 개막해 10월 한 달간 다양한 행사로 손님들을 맞았다.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관과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 축제가 자카르타 롯데쇼핑 에비뉴를 비롯 여러 공연장에서 펼쳐졌는데, 개막식에는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사, 디노 파티 잘랄 인도네시아 외교부 차관, 아흐만 샤 관광창조경제부 총국장과 현지 주요 언론매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퓨전국악단 ‘퀸’의 화려한 무대로 막이 올랐다. 이번 행사의 주공간인 롯데쇼핑 에비뉴 아트리움에서는 K-팝 커버댄스와 교민 풍물패인 한바패, 인도네시아 태권도 시범단 등의 공연이 이어졌다. 공연장 주변

에는 한복입기 체험장, 한국 겨울관광을 홍보하는 트레블 마트, 한국음식 시식·판매 부스, K-애니메이션 출판 전시장 등이 설치돼 축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3일 자카르타 카르티니회관(Balai Kartini)에서 열린 ‘한-인니 문화의 밤’ 행사에서는 드로잉쇼 ‘페인터즈: 히어로’가 인기를 독차지 했다.

‘어울림(Harmoni Kebersamaan)’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K-팝과 드라마를 넘어 K-푸드, K-트레블, K-애니메이션·출판·콘텐츠, K-뷰티 행사 등 한국 문화의 다채로움을 선보였다. 또 한-인도네시아 미술인이 함께하는 디지털·설치 미술전, 양국 시범단이 함께하는 태권도 시범, 한국 영화는 물론 한국어 자막을 넣은 우수 인도네시아 영화를 상영하는 한-인니 영화 페스티벌이 열렸다.





Korea-Indonesia Festival

한국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과 인도네시아 태권도 시범단이 함께 공연하고, 태권도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행사인 <한국과 인도네시아 태권도 한마당>이 12일(일) 롯데백화점에서 열렸다.

태권도 한마당 행사는 K-팝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시범단 공연, 국기원 시범단 공연, 시범단과 함께하는 격파 및 시범체험, 시범단과 함께하는 포토세션과 도복체험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한글날을 기념해 ‘한-인니 미디어 설치 미술전’이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려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이 전시회에는 그래픽디자이너 안상수, 영상아티스트 송주명 작가와 부장안 어반, 라마다니 쿠르니아완 등 13명의 양국 유명 작가들이 한글과 다양한 문자를 소재로 한 작품을 출품했다. 거리 예술가로 잘 알려진 부장안 씨가 출품한 ‘글 속에 글’이라는 창의적인 개념을 도입한 작품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데도 전쟁은 더 심각해지네(Banyak yang cinta damai, tapi perangnya makin ramai)’라고 작품 속에 인도네시아어 문장을 넣어 평화와 반전의 메시지를 담았다.



제15회 인도네시아 한인 미협전



2014년 10월16일 한국문화원에서 제15회 인도네시아 한인 미협전의 개막을 알렸다. 이날 22명의 재인니 미술협회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많은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과 교민을 비롯 외국인 작가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지난 2000년 창립된 이 미술협회는 꾸준한 활동으로 매년 정기 전시회를 여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수진 미협회장은 “전시를 통해 작가들에겐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교민 여러분에겐 다양하고 풍성한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한다” 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인도네시아 한인미협전은 10월22일 까지 한국문화원에서 교민들의 뜨거운 호응속에 전시되었다.

제5회 루시 플라워회 회원전



제5회 루시 플라워회(회장 최정순) 회원전이 한국문화원 (Jakarta, Equity tower 17th fl)에서 10월24일에서 26일까지 열렸다. 25명의 회원의 40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배움의 소중한 시간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2000년 첫 전시를 시작하여 2년마다 열려 올해로 5회를 맞이했다.



2014 한인문예총, 제2회 종합예술제 전야제



부제-한인 세대가 남기는 메시지

재인도네시아한인문예총은 한국문화원과 공동주최로 종합예술제를 펼쳤다.

10월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그동안 14개의 여러 장르의 다양한 문예총 소속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였다.

김문환 한인문예총회장은 “종합예술제를 통해 재외동포사회라는 제한된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기량을 발휘하는 기회를 갖는 동시에 우리 차세대들이 올바른 풍향을 타고 선대의 투혼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고 인사말을 전했다.

예술제를 알리는 전야제 행사로 Sasando의 고풍스런 현의 선율이 막을 올렸다.

문인협회 시인들의 시낭송, 월화차회의 다도시연과 함께 <자필묵연>의 서예전, 문인협회의 시화전, 헤리티지회원의 사진전의 전시도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시간이었다.



Jakson Octavianus



김문환예총회장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장



이동균



최장오



한경순



박정자



김성월



서미숙





한인 세대가 남기는 메세지

‘재인도네시아한인문예총’ (이하 문예총) 산하 12개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예술제(공연, 전시, 낭송, 시연)를 11일부터 사흘 간 열렸다.

종합예술제 본공연은 12일에 자카르타한국국제 학교(JIKS) 나래홀, 13일에는 자카르타 롯데쇼핑 애버뉴 아이스팰리스에서 열렸다.

본공연은 국악사랑의 판굿과 한바패의 난타, 자카르타어린이합창단과 자카르타아버지양상블의 노래, 색소폰 동호회의 색소폰 연주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카르타 어린이 합창단

이번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공연단도 참가하였다. 자카르타예술대학공연팀의 Betawi 전통춤 공연과 Rosso예술단의 전통의 춤극공연, Saman Gayo 팀의 Saman dance를 감상할 수 있었다. 화려한 춤사위와 훈련된 모습으로 객석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였다.

무형문화제 57호 경기민요의 전수자인 이나영 명창이 다른 세 명의 소리꾼들과 강원도 아리랑, 태평가, 밀양아리랑, 뱃노래 등을 부르며 객석과 호흡하는 흥이 넘치는 무대를 선사하였다.



국악사랑



Jogja Rosso Group



Institut Kesenian Jakarta



경기민요 전수자 이나영외3인

이번 공연의 부제를 ‘한인 1세대가 남기는 메시지’ 라고 정한 것에 대해, 김문환 한인문예총 회장은 “우리 기업의 진출 시기를 기점으로 할 때 재인도네시아 한인사회가 반세기에 가까워지고 있다” 며 “서서히 세대교체를 맞고 있는 한인사회 내에서 우리 차세대들이 올바른 풍향을 타고 더 큰 성취를 이루도록 염원하는 마음에서 한인 1세대 주취기업과 기업가들이 후원해 이번 행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한 장소에서 각 장르를 아우르는 예술적 분위기를 만들어 보았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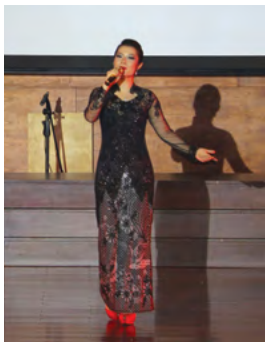
이나영 명창 초청 공연에 대해, 김 회장은 “한인



한바페

문예총이 한국문화원과 공동주최로 한국문화예술계의 명사를 정기적으로 초청해 한국문화예술의 진수를 현지예술계에 접목시키는 시도의 일환이다” 고 설명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다양한 재주를 가진 이웃을 만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색소폰 동호회



자카르타 아버지 앙상블

KOWIN(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제2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의 여성가족부가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 여성의 네트워크를 위해 출범시킨 KOWIN(회장 박현순)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6기를 맞이하였다.

10월29일 자카르타에서 2014-2015 KOWIN 정기총회를 열고, 그동안의 진행하였던 여러 행사를 보고하였다.

이날 총회는 KOWIN의 소개, 박현순 회장과 임현철 관세관의 인사말, 2013~2014년도 활동 및 회계보고, 회원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20~50대 여성들이 모여서 자신의 일을 소개하고 교류를 나누었다.

코윈 인도네시아 6기는 2013년 9월에 소수의 인원으로 출범했지만 지금은 현재 정회원 및 차세대 회원 90 여명을 거느린 단체로 성장했다.

박 회장은 “지난 1년간 인도네시아 KOWIN은 대한민국여성가족부에서도 다른 나라의 KOWIN이 벤치마킹할만한 활발한 활동이었다고 칭찬받을 만큼 좋은 결실이 있었다” 며 “이제 내실을 기함



은 물론 동포사회나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 고 밝혔다.

코윈은 제 6기 2차 년도인 2014~2015년 기간에 회원 간 질적 교류와 네트워킹의 활성화, 차세대 리더들과의 소통, 멘토링, 전문성 발휘 등을 통하여 회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내달 15일(토)에는 여성가족부 지원 “KOWIN 차세대 행사 및 행복충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언니의 독설>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명강사인 김미경 초청 강의를 개최한다. 강의에 앞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전문직 한인여성과 기업가가 패널로 참여하는 생생토크를 진행한다.

스타강사 김미경 '초청강연' & 전문직 여성과 기업가의 生生 Talk'

"꿈으로 성장하고 운명으로 단단해져라"

일시 | 2014년 11월15일 오후 1시~4시
장소 | 롯데백화점 4층 아이스 팰리스 홀
대상 | 인도네시아 교민전체

- 1부 : 제3회 코윈 "生生Talk"
김희년 자카르타경제신문 명예 발행인 & 최민아 대한민국 최초 여성 인천공항 인도네시아법인장
- 2부 : 김미경 강사 초청강연
"꿈으로 성장하고 운명으로 단단해져라"

언니의 독설, 김미경.
인도네시아 교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참가신청:1004kowin@gmail.com

전국체육대회, 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

10월 13일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회장 양영연)는 제 95회 제주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할 인도네시아 선수단 출정식을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다목적실에서 개최하였다.

이중후 선수단장의 환영사에 이어 조태영대사는 선수 확보에 수고한 회장단 및 관계자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선전한 인도네시아선수들 만큼 이곳의 한인선수들도인도네시아에서의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고 선수단을 격려했다.

승은호 민주평통아세안지역회의 부의장과 김우재육타회장은 선수들의 건투와 안전에 유의를 당부했다. 양영연 회장은 “전문 선수들이 아닌 일상의 시간을 쪼개어 출전하는 선수단 여러분께 감사한다. 협조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대사관, 한인회, 후원기업, 체육회 임원,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컨디션을 잘 유지하여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필승의 결의와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사하였다.

김희익사무총장은 선수단을 소개하면서 “선수단 경기력 정보와 식단준비까지 선수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볼링과 태권도에서 금메달 확보가 기대되며, 다른 종목에서도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릴 것을 다짐하며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축구, 테니스, 태권도, 볼링, 골프, 탁구, 스쿼시, 검도에 출전하게 될 인도네시아의 선수단은 20여개국 선수단과 화합하고 교류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인도네시아한인사회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1년 6월24일 대한체육회 지부를 창립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



하는 자격을 얻고, 5개 종목 71명의 선수단을 92회 전국체육대회를 처음으로 출전한 후 4년 연속 선수단을 파견했다.

11월 3일 종료 메달 집계.(종목 순)

검도(시범)은메달 1

볼링 남 3인조 은메달 1개 남일성, 김유동, 김영기 선수

볼링 여 5인조 동메달 1개

볼링 남 5인조 동메달 1

볼링 마스터즈 남일성 동메달 1

스쿼시 한미혜 선수 동메달 1

축구 동메달 1개

태권도 여 은메달 1개 데이 선수

태권도 남 은메달 1개 정기원 선수

태권도 남 은메달 1개 최윤석 선수

태권도 여 동메달 1개 백은희 선수

테니스 여 동메달 1개 김현숙 선수

총 메달집계 : 은 5, 동 7



제 64주년 6.25 행사 및 북한인권 사진전
감상문 공모 시상식

6.25 행사 및 북한인권 사진전 감상문 공모 시상식



제 64주년 6.25 행사 및 북한인권 사진전의 감상문 공모 시상식이 8일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회장 현상범, 이하 자총인니지부) 주관으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나래홀에서 열렸다.

학생들은 지난 6월 19일 열렸던 6.25 행사 및 북한인권 사진전을 관람한 뒤 감상문을 공모하였는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6.25 전쟁의 의미와 자유수호의 의지를 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기대한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승익 JIKS 교장을 비롯하여 박진호 서기관, 현상범 자총련회장, 박동희 민주평통 동남아 남부협의회회장, 강희중 월드옥타자타르타지회회장, 조규철 한인회 수석부회장, 최병우 대한체육회 부회장, 안광진 한인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재민 한인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여 22명의 학생들에게 직접 상장과 상품을 수여했다.

현상범 자총인니지부회장은 인사말에서,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6.25 전쟁을 상기하면서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워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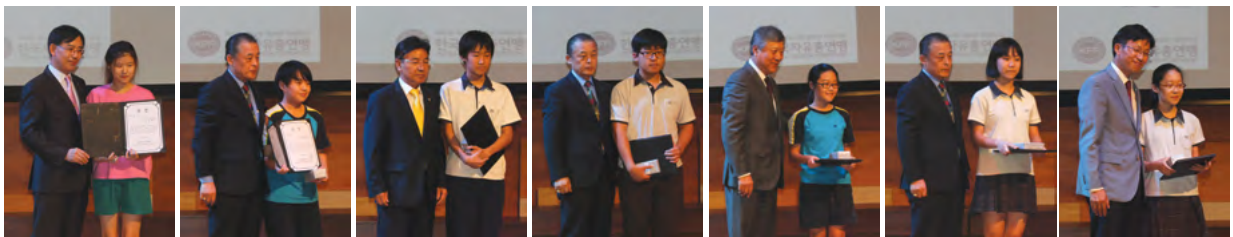
학생들 및 참석자들과 함께 '나라사랑 한마음'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초등부 수상자 10명>

- 최우수상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상 최예림(8)
- 우수상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상 박유나(5), 대한체육회 인니지부회장상 장석현(5),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회장상 성유림(5), 한국자유총연맹 인니지부회장상 차정민(5)
- 장려상 : 한국자유총연맹 인니지부회장상 우종호(5), 김지성(5)
- 참가상 : 천영환(5), 이현지(5), 김도윤(5)

<중등부 수상자 12명>

- 우수상 :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상 안옥주(9),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교장상 손지원(8),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회장상 유현우(8), 세계한인무역협회 인니지부회장상 김혜인(9), 한국자유총연맹 인니지부회장상 손명준(10)
- 장려상 : 한국자유총연맹 인니지부회장상 권혜(7), 박예찬(10), 임지현(8), 김채연(10)
- 참가상 : 안바울(7), 신케빈(10), 안태현(7)



보세지역(KB) IT Inventory 제도 안내 【IT Inventory 제도】

□ 인니 관세청은 보세업체에 파견되어 보세물품 반출입을 직접 관리하는 세관공무원파견제도 (Hanggar)를 축소, 물품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IT Inventory (전산재고정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왔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이에 대한 동포분들의 많은 문의가 있어 주요 내용 알려드립니다.

○ 모든 보세지역 업체들은 인니 관세청에서 정한 IT Inventory (전산재고정보 시스템) 매뉴얼을 참조하여 업체안에 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IT Inventory (전산재고정보 시스템)의 핵심은 첫째, 원자재의 종류별 반입/반출, 재고 물품의 처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반드시 재고현황, 반입/반출현황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 둘째, 세관 전산망과 동 시스템을 연결하여 세관에서 동 시스템을 열어볼 수 있도록 하고 물품 반출/반입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동 CCTV를 세관과 연결하여 세관에서 CCTV를 항상 볼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 현재 보세구역업체를 Green(우수), Yellow(보통), Red(불량)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바, 동 등급은 6개월에 한번씩 조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등급 조정시 IT Inventory (전산재고정보 시스템) 설치 및 운용여부가 가장 큰 평가요소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 IT Inventory (전산재고정보 시스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Red(불량) 등급을 받게 되며, Red(불량)등급을 연속 두 번 받을 경우, 물품의 수출 수입이 중단됩니다.

□ 상당수의 한국업체가 보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IT Inventory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 인니관세청에 따르면 더 이상의 계도기간은 없으며 IT Inventory (전산재고정보 시스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출입이 중단되며, 설치 후에도 재고현황, 반입/반출현황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바, 이를 입력하지 않아도 수출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업체에서는 반드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 자료를 입력하여 수출입중단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포 기업 여러분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임현철 관세관
(대사관 대표전화 : 021-2967-2580)

KOICA 해외봉사단원 "따갈라르 교육정보센터" 개원식 개최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이 파견한 해외봉사단원은 지난 10월 2일 남부술라웨시 마까사르 따갈라르 군에 교육정보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이를 기념하는 개원식을 가졌다.

금번 사업이 실시된 따갈라르 지역 내에는 240여 개의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화장실 및 세면대도 없는 3평 남짓한 열악한 공간에서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갈라르 교육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김혜우 봉사단원은 보육시설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도 시급하지만 교사 교육이 미흡한 데 따른 교사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 교사간의 정보 교류결여가 더 큰 문제점이라고 판단하여 본 교육정보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교육정보센터는 따갈라르 군 최초로 건립된 유아교육 전문시설로 지역 내 누구나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 보육시설에 실제적이고 모범적인 교육정보와 교육과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사들에게 체계적이고 앞선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유아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어린이 도서관 등을 통한 유아 교육,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인 유아교육 분야의 해외봉사단원들이 협력하여 개발한 유아교육 교재를 보급할 계획

인데, 이 교재는 선진 교수법을 현지 사정에 맞게 접목시켜 실제적인 내용을 담았을 뿐 아니라 기본 생활습관 및 위생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교사의 전문성 함양과 유아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행사에는 따갈라르군의 고위 관계자들 및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소장, 인근 학교와 유치원 교사 등 지역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유치원 원아 및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이 축하공연을 선보이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따갈라르 부르하누딘(Burhanuddin) 군수는 대리인을 통해 “본 센터가 지역 주민과 선생님들에게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며 금번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KOICA 김병관 소장은 “어린이들이 나라의 미래이며,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때 좋은 미래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며 “이곳 출신의 아이들이 인도네시아를 발전시켜나가는 지도자로 커나가는 데 본 센터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한편 금번 현장사업을 통해 시설물의 개보수와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주도한 KOICA 김혜우 봉사단원은 앞으로도 신설 유치원 개설과 기존 유치원 개선에 있어 본 교육정보센터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아시아나, 태양광 가로등 설립 준공식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이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추진하여 설치한 태양광 가로등 준공식이 10월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스띠끌랄 이슬람사원 경내에서 열렸다. 금번 행사에는 인니 측에서 Mr. Ade Palguna 환경부 차관보, Mr. Muthar Ali 종교부 차관보, Mr. Mubarak 이스띠끌랄 사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측에서는 주 인니 대사관 박영식 공사, 박상민 공사,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 김병관 소장과 아시아나 항공 류광희 본부장 등 양국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에 준공한 사업은 KOICA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인 글로벌 CSR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카르타 중심부에 소재한 동남아 최대 규모의 이슬람 사원인 이스띠끌랄 사원 내부 찢리웅 강변을 따라 총 26주의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되었다. KOICA와 아시아나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동 사원 입구에 1주의 가로등을 이미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에 추가로 25주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모두 26주의 가로등이 완성되었다. 태양광 가로등 26주는 백열전구에 비해 연간 CO2 배출량 5,980kg 감소가 기대되어 소나무 2,132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한편, 이스띠끌랄 사원은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원이자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으로, 금번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에 설치된 태양광 가로등은 문양과 인도네시아 전통 문양인 바틱 문양을 조화시켜 특별 제작되어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의 발전을 상징하고 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양국 환경부의 협력으로 개발되어 KOICA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찢리웅 강 복원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지 강변에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환경교육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찢리웅 강 복원 시범사업은 한·인니 양국의 환경협력으로 오염된 환경의 복원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으로 현재 홍수 방지용 가동 보가 설치 중에 있다. KOICA는 인도네시아의 상징이자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이스띠끌랄 사원 내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 및 강 복원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환경인식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운데 현수막을 중심으로 좌측에서부터 아시아나 박철우 지점장, 대사관 박상민 공사, 정용식 건교관, 아시아나 류광희 본부장, 대사관 박영식 공사, Muthar Ali 종교부 국장, Ade Palguna 환경부 차관보, Mubarak 이스띠끌랄 사원장, Yun Insiani 환경부 인프라서비스 국장, 김병관 코이카 사무소장>



농협사료, 인도네시아 타피오카 가공공장 인수



22일, 농협사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물리아호텔에서 채형석 농협사료 대표이사 와 인도네시아 람풍주에 위치한 이스칸다르 센자야(Iskandar Senjaya) 공장주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네시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농협사료는 국내 사료원료의 수급안정을 위해 연간생산 6만톤 규모의 인도네시아 타피오카 가공공장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인도네시아 타피오카 가공공장 인수를 통해 연간 필요물량의 30%를 직접 가공해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됐고,

사료원료 수급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도입원가 절감을 통해 사료가격 안정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이번 현지공장 인수를 통해 사료 부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된다” 며 “현지공장을 기반으로 부 원료 유통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교두보를 확보했다는데 또 다른 의의가 있다” 고 말했다.

타피오카는 카사바의 뿌리에서 채취한 식용전분으로 주로 남미, 동남아시아에서 식용 및 공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농협사료는 인도네시아 현지 전분공장 시설을 활용해 타피오카 펠렛을 연간 60,000톤 이상 가공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 시 식량안보차원에서 사료원료가 아닌 식용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타피오카 가공공장의 운영은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는 201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및 시험 생산을 통하여, 2016년부터는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 4회 한인니 상생협력 포럼

10.24(금) 한·인니 상생협력센터(GKBI 빌딩 1209호)에서 코트라(KOTRA),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PU), K-Water가 주최하여 인도네시아 수자원 학교 운영 및 인니 공공사업부 수자원 프로젝트 설명회가 개최됐다.

수자원 프로젝트 수주 희망기업 50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아리 인니 공공사업부(PU) 수자원 국장이 인니 수자원 정책 및 프로젝트 발주 계획에 관하여 발표했다.

코트라(KOTRA) 한·인니 상생협력센터에서는 매월 주요 이슈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인니 상생협력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수자원 분야의 사업 계획 및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심도 있는 소개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여, 현지 인재 육성은 물론 현지 정부와 네트워크 강화에 이바지함으로써 향후 또는 관련 프로젝트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인당 담수면적이 52m³로 대표적인 물 기근 국가이다. 최근에는 향후 5년간 담수 면적을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댐건설 프로젝트를 대폭 늘려나갈 방침이다.

코트라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중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수처리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0월 20일 월요일부터 시작해 24일 금요일까지 진행된 이번 ‘K-Water’ 수처리 학교 프로그램에는 수자원 관리계획, 댐건설 및 운영, 수처리 교육 등이 진행됐다.

K-무비, K-드라마와 함께하는 자카르타 패션위크 개최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김석기)은 인니 최대 패션쇼 행사인 자카르타 패션위크(11.1~7)와 공동 협력하여 패션위크 메인 행사의 하나로 K-무비와 드라마를 주제로 하는 패션쇼 행사를 개최(11.3(월) 17~18시)했다.



패션쇼는 11.3(월) 17~18시 스냐얀시티 패션 텐트 행사장에서 개최되며, 2012 대중상 영화제 ‘의상’ 상을 수상하였던 K-무비 “광해”와 인기 TV 드라마 “커피프린스”의 영상과 음악을 모티브로 인도네시아 신진 디자이너들이 제작한 작품들이 선보였다.

자카르타 패션위크 총괄 기획 Ms. Lenni 씨와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디자이너가 상대국의 전통을 담은 옷감을 소재로 자국의 감성을 담은 작품을 선보였으며 올 해도 한국적 감성과 패션 디자인이 만나 “한류”를 새롭게 조명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고부가가치 창조산업인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년도 전인도네시아 실업고교 외국어 경시대회

2014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인도네시아 말랑시 국립말랑대학교에서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실업고교국 주최 “2014년도 전인도네시아 실업고교 외국어 경시대회”가 성황리에 개최했다.

2013년도 커리큘럼 개정에 한국어가 “제2외국어 필수선택 과목”으로 채택된 후 “한국어”가 전국규모의 경시대회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인도네시아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한국어 총 7개부분에서 인도네시아 33개 특별시 및 주에서 선발된 250명의 대표들이 각자의 외국어 실력을 겨루워, 한국어 부분에서는 SMK N 57 Jakarta의 Feby Antika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우수상으로는 SMK N 8 Jakarta의 Maharani Anindya, 장려상으로 SMK N 1 Bandung의 Yuniar Ayuningtyas가 수상하였다. “한국어” 우수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문



대학교에서는 직접참여하여 수상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격려하였다. 이밖에도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전액 무료 한국어과정 및 숙식, 왕복항공권등을 부상으로 전달하였고, 국립한밭대학교, 국립강원대학교, 극동대학교, 가천대학교, 우석대학교등에서 각종 장학증서와 부상을 전달하여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자료제공 : Christ Chang / 한국어부분 심사위원장, 비누스대학 한국어 교수겸 한.인니 교육문화 교류재단 단장>



인도네시아 국제도서박람회 한국관 운영

한국중단편문학시리즈 출판기념회, 디지털 문학 전시회, 한-인니 출판산업 관계자 B2B 초청간담회, 시낭송 대회 등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김석기)은 인도네시아 출판협회(IKAPI, Indonesian Books Publishers Association)가 주최하는 제 34회 인도네시아 국제도서박람회(11월 1일 ~ 11월 9일)에 한국관을 운영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출판협회,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출판진흥원이 참석하고 한국중단편문학선 시리즈, 한-인니 어린이 함께 읽는 전래동화를 비롯한 한국 도서 500여권을 선보였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이 주관하는 한국관은 Inspirasi Korea라는 테마로 진행되며 일반도서 코너를 비롯하여 LG전자가 후원하는 E-book 코너, 한국중단편문학시리즈, 한-인니 어린이가 함께 읽는 전래동화, 한국과 인도네시아 출판 산업 관계자 B2B 초청 간담회, 어린이 코너(로이비주얼社 로보카폴리), Yes 24 코너, 포토존, 기념품 코너 등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전시 및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Read book, See the world” 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인도네시아 국제도서박람회는 전 세계 11개국(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싱가포르, 중국,

이집트, 말레이시아,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캐나다, 파키스탄 등)이 참가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도서박람회이다.

<주요행사>

- 11.5 인도네시아 출판 산업 관계자 B2B 초청 간담회
- 11.5 한국중단편문학선 시리즈 출판기념회

<문화행사>

- 11.3 오후 4시, 님버벌 드로잉 퍼포먼스, 더 페인터즈 히어로 공연
- 11.4 오후 2시, 해군순항훈련전단
- 11.7 한국 시낭송 대회



아름다운 동행

<고희기념 두 부부 합동전> 출판과 전시

고희기념 출판회 및 전시 개막
2014. 11. 8일 오후 5시
전시 2014. 11. 7 ~ 12. 3

HOTEL JAVA PALACE 문화홀
(Jl. Niaga Utara Kav 1-2
Jababeka 2 Cikarang 021-2928-1111)

여기! 고희를 맞은 아름답고 특별한 이벤트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고희를 맞아 함께 책을 발간하고 전시를 여는 운초 김영주와 목정 장 임, 두 분과 부부전에 기꺼히 동참을 하신 시후당 윤계옥 여사와 세정 심순희여사입니다. 칠순을 맞아 부부가 함께 전시를 하는 것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인데, 두 분이 합동부부전을 여는 것이니 그야말로 이벤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전시는 『아름다운 동행』 과 『한마음 한뜻, 두

마음 한뜻』 책에 실린 작품을 선별한 것입니다. 이 전시의 특징은 7순에 이르도록 비즈니스와 기업의 현장에서 겪어온 두 분의 삶의 희노애락이 고전의 명구들과 고아한 필묵을 통해 두 분의 개성으로 잘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과거를 아름답게 돌아보고 남은 생을 새롭게 설계하며, 이를 온 가족과 친지, 벗과 아울러 모든 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은 참으로 대단한 미담입니다.

운초 김영주 고희기념집 『아름다운 동행』 과 목정 장 임 고희기념집 『한마음 한뜻, 두 마음 한뜻』 이 출판됩니다.



세정 심순희



운초 김영주



목정 장임



시후당 윤계옥

자필묵연(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인도네시아지회)이 2014 한글날 기념 한국서예초대전을 10월19일부터 11월3일에 걸쳐 자바팔레스호텔(짜카랑, 자바베카소재)에서 성황리에 전시회를 가졌다.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THE REPUBLIC OF INDONESIA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고의 글로벌 CEO 과정을 보유한 한국 외대 경영대학원과 함께 코참이 글로벌 CEO 2기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신청 화신은 11/30(일)까지 작성한 신청서와 사진(스캔본)을 첨부하여 화신 바라며,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사오니, 빠른 신청바랍니다.

< 한국외대 글로벌CEO 2기 모집과정 안내 >

- ◎ 신청 기간: ~ 2014. 11.30(일)
- ◎ 프로그램 기간: 2014. 12. 11(목) ~ 2015. 1. 31(토)
매주 목요일 3시간(18:00 ~ 21:00),
매주 토요일 6시간(13:00 ~ 19:00)
- ◎ 장소: WISMA KORINDO 14층 회의실(Jl. Letjen. M.T. Haryono Kav. 62 Pancoran)
- ◎ 강의기간 : 2014. 12. 11(목) ~ 2015. 01. 31(토)
- ◎ 수 료 식 : 2015. 01. 31(토) 외대 총장참석 및 수료장 수여
- ◎ 강의명

		강의일		담당교수 및 전공
1		12. 11(목), 13(토)		권 석 균, 조직/인사관리
	강의명	국문	조직과 인사관리	
	강의명	영문	Organization and People Management	
2		12. 18(목), 20(토)		채 명 수, 마케팅
	강의명	국문	마케팅관리	
	강의명	영문	Marketing Management	
3		01. 08(목), 10(토)		유 태 영, 경영전략
	강의명	국문	전략경영	
	강의명	영문	Strategic Management	
4		01. 15(목), 17(토)		박 진 우, 재무관리
	강의명	국문	재무 및 투자관리	
	강의명	영문	Finance and Investment	
5		01. 22(목), 24(토)		박 병 일, 국제경영
	강의명	국문	국제경영	
	강의명	영문	International Business	
6		01. 29(목)		고 영 훈, 인도네시아 문화
	강의명	국문	인니문화의 원형	
	강의명	영문	Origins of Indonesian Culture	
7		01. 31(토) 13:00~16:00		권 석 균, 조직/인사관리
	강의명	국문	리더십과 변화경영	
	강의명	영문	Leadership and Change Management	
		01. 31(토) 17:00~18:00 수료식		

◎ 담당자 : 김혜아 간사 kocham0701@gmail.com / 0813-1064-9663
jadekim@kocham.or.id

JIKS

‘바다에서 꿈을 펼쳐라’ JIKS 진로체험학습



10월 1일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이하 JIKS, 교장 김승익) 10~11학년 학생 31명이 판중쁘리옥항에 입항한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바다호’에 승선하여 진로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이번 진로 체험학습은 ‘2014 해양실크로드 글

로벌 대장정’ 탐험대가 지난 9월16일 한국을 출발하여 중국 광저우와 베트남 다낭을 거쳐 10월 1일 자카르타에 도착한 것을 계기로 진행되었다.

먼저 ‘한바다호’에 승선하여 한국해양대 홍보 동영상 시청한 후, 이윤석 교수(선박운항과)의 한국해양대 해사대학 안내 및 3학년 실습생들과의 대화 순서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간담회 이후에는 실제 배의 여러 시설(조타실, 기관실, 갑판 등)들을 견학하면서 실습생들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고, ‘한바다호’에서 제공한 저녁식사를 하면서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또한 행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재인니 한국해양대학교 동문회’에서 여러 도움을 주었다.

체험학습을 인솔했던 JIKS 박종운 중등 교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해양관련 직업에 대해 좀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JKS

가난한 인니 아이들을 돕는 Sahabat Anak 프로젝트 -배려와 나눔으로 성장하는 JKS 어린이-

자 카르타한국국제학교(JKS, 교장 김승익) 초등학교 학생들은 9월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가난한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돕기 위한 ‘Sahabat Anak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 인도네시아어로 ‘아이들의 친구’이라는 뜻을 가진 ‘Sahabat Anak’은 부모나 집이 없는 인도네시아 아이들을 도와주는 단체이다.

원어민교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는 자원봉사 단체인 ‘Sahabat Anak’을 학교에 초청하여 강연을 들은 후, 홍보용 포스터 제작, 가정통신문 발송, 기부물품 수집 및 전달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JKS 초등학교의 학급 및 전교 임원학생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도록 하였다.

JKS 초등학생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을 가졌다고 입을 모았다.



JIKS

예비교사들, JIKS에서 글로벌 교육을 배우다 -대구교대생 교생실습 실시-

2014년 10월 20일(월) ~ 10월 24일(금) 5일간 대구교육대학교 학생들의 교생실습이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에서 실시되었다. 15명의 실습생들은 2~6학년 각 학급에 한 명씩 배치되어 일주일간 학생들과 학교 일정을 함께 하며 수업참관, 아침자습지도, 중식지도, 생활지도, 수업실습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초등교사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본교가 마련한 각종 연수에 참석하고 담임교사들로부터 수업기술에 대한 지도 조언도 받았다.

인솔자로 동행한 권택환교수(대구교육대학교 특수(통합)교육)는 본교의 특수교육을 위해 준비해 온 자료를 전달하고 특수반(소나무, 민들레반) 교사들에게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돌아가 재외한국학교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과 글로벌 교원 확보를 위한 재외동포 자녀 교대 진학 기회 마련의 필요성을 관련 기관에 피력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생들은 실습 후 써 낸 소감문을 통해 글로벌 교육에 적합하게 갖추어진 본교의 교육시설과 내



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가족 같이 따뜻한 학교 분위기 및 이곳 어린이들의 순수함에 대한 경이와 감동을 아낌없이 표현했다.

초등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교생실습은 지난 해 본교와 대구교육대학교가 체결한 MOU가 시발점이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국내 교육대학교와의 교류 활성화의 계기 및 본교 초등교육에 한 줄기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 긍정적인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다.

JIKS, 초등 입학설명회 및 중등 진학설명회 개최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김승익)는 오는 11월 18일 201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앞둔 초등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입생 입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어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본교의 교육과정과 실제 교육활동 모습을 소개할 예정이다.

= JIKS 2015학년도 초등과정 신입생 입학설명회 =

- ▶일시: 2014. 11. 18.(화) 10:00~11:40
- ▶장소: 본교 나래홀
- ▶대상: 유치원생과 학부모

입학설명회 이틀 날인 11월 19일에는 재외국민 자녀들의 대학입시 변화와 JIKS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진학설명회 및 교육과정 설명회가 실시된다.

= 중고등과정 교육과정 설명회 및 진학설명회 =

- ▶일시: 2014. 11. 19.(수) 10:00~12:00
- ▶장소: 본교 나래홀
- ▶대상: 6~11학년 학부모 및 교육에 관심 있는 동포 모든 분

자녀의 성공적인 미래 설계와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이번 입학설명회와 진학설명회에 유치원과 초중고 자녀를 둔 교민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J I S



Cilandak Games



(학생기자 김혜경)

10월 9일 JIS (자카르타 국제 학교) 에서 Cilandak Games 가 열렸다. 해마다 개최 되는 Cilandak Games 의 원리는 한국의 체육대회와 비슷하다. 고등학교 각 학년이 팀으로 나뉘어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 한 학년의 우승을 가리는 것이다. 학년 별로 우승을 위해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Cilandak games 는 개인적인 생활에서 흩어져 있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었다.

Cilandak games 는 각 학년마다 열띤 응원 (Spirit cheer) 으로 시작되었다. 학년 별로 다른 색깔의 의상을 입고 모여, 한 자리에서 다양한 응원들을 선보였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인 만큼, 학생들은 힘껏 자기 학년을 응원하였다. 그 다음 학생들은 여러가지 게임에 임하였다. 어떠한 학생들은 Relay race, 피구, 배구, 축구, Capture the flag, Quidditch, 어메이징 레이스 와 같은 활동적인 운동에 참여하였고 예술에 더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배너 페인팅, 춤, 노래, 사진 촬영, 과 두뇌 게임을 하였다. 작년에 새로 생긴 Quidditch 과 두뇌 게임을 이어 올해는 사진 촬영, 춤, 과 노래 가 새로 추가되었다. 새로 만들어진 분야였기 때문에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기대와 관심을 끌었다. 각자 게임을 마친 후 모든 학생들이 마지막 줄다리를 하기 위하여 모였다. 줄다리는 Cilandak

Games 의 대표적인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활동을 하며 뽀뽀이 흩어져있던 학생들이 다시 학년 별 그룹 으로 묶어 서로 경쟁하였다.

각 분야에서 학년 간의 순위를 정하여 점수를 합산 하였고, 합산한 점수중 총 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로 올 해의 순위를 발표했다. 올해는 12학년 이 1등을 차지하고 11학년이 2등, 9 학년이 3등, 그리고 10 학년이 4등을 차지하였다. 지난 4년 동안 12학년이 계속 우승한 결과 JIS 교감선생님은 “12학년이 지는 날이 올것인가?” 라고 의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Cilandak Games 의 중요한 것중의 하나는 선생님들 보다 학생들이 이 행사를 이끌어 나갔다는 것이다. CSC (Central Student Council) 에 속 하는 전교 학생 회장, 부회장 등 학교임원 학생들이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 하고 노력하였다. 12 학년 전교 회장 이보니 는 Cilandak Games 의 MC를 맡아 행사의 열기와 재미를 불어넣었고 12학년 총무 조화진은 나머지 CSC 멤버들과 함께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렇게 국제 학교에서도 한국 학생들의 리더십이 돋보임을 보여준 Cilandak Games 이었다.



2014년 10월 월간 경제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일보(pagi.co.id)

여전히 자바지향적 투자 성향... 올해 1~3분기 자바섬 투자실현액 193조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이 지난주 발표한 올해 1~3분기(1~9월)까지 자바섬의 투자실현액은 총 193조 루피아에 달했다. 반면 동기간 비자바지역 투자실현액은 149조 루피아였다.

아즈하르 루비스 BKPM 조정관은 21일 현지언론 브리따사뚜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3분기(7~9월) 자바섬 투자실현액은 62조 루피아였고 비자바 지역의 투자실현액은 57조 루피아에 그쳤다”고 밝혔다. 아즈하르 조정관은 “자바섬의 투자실현액이 높은 이유는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원스톱서비스(PTSP : Pelayanan Terpadu Satu Pintu)를 확장하고 있고 부지확보 간편화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반면 동부 지역에서는 천연 자원에 대한 투자가 많아 파푸아 등 지역에서는 올해 3분기 외국인 투자의 83%를 광업이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자원 가격 상승하락세에 따라 지역 경제가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 유치에 있어 업종 다변화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동시에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 인프라 충족 여부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바지향적 경향을 쉽게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바수끼 “내년 최저임금 인상 6%대로 제한해야”

자카르타 특별주에서 노조 측이 내년 최저 임금 30% 인상을 요구한데 대해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주지사 대행은 2015년 최저임금상승률을 전년 대비 6% 상승으로 제한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노조 측은 내년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수끼 지사대행은 물가상승 억제 방안을 마련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카르타특별주의 최저임금은 현재 월 244만 1301루피아로 전년대비 10.95% 오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외국계 공장이 많은 까라왕군(약 244만 7450루피아)을 비롯한 서부자바주의 각 군단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한편 2015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은 오는 11월 1일 각 주 단위로 주지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올해 총선과 대선의 여파로 최저 임금 결정을 위한 물가조사 등 임금책정에 앞선 물가조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물가파악이 완료된 이후로 최저임금 발표를 보류해야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규 일자리 줄고 있다. 새 정권 역할 커

인도네시아에서 신규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는 1~9월의 신규투자에 의한 고용창출이 전년동기대비 46%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투자 실현액이 증가경향에 있는 가운데 비용증가로 노동집약형 산업으로의 투자가 정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라디스칸다니 부회장(금융재정정책담당)에 따르면 신규고용은 96만 336명이었으며 “최저임금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노동집약형 산업으로의 투자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투자실현액은 17% 증가한 342조 7,000억 루피아로 늘었으나, 투자확대가 신규고용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보였다.

새로 출범하는 조코 위도도 정권이 노동집약형을 시작으로 하는 제조업 투자유치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가 소득상승으로 직결되지 않으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100만 루피아만 내면 남자 공무원은 두 번째 처를 들일 수 있다? 없다?

최근 인도네시아 한 지방정부가 발표한 일부다처제(일명 Poligami) 관련 규정이 논란이다.

사건의 발단은 롬복에서 시작됐다. 서부누사똥가라 동부롬복 군수인 무하마드 알리 빈 다흘란은 최근 해당 군 공무원(PNS)의 경우 지방정부에 1백만 루피아의 특별세를 내고 여러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다처를 인정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일부다처가 허용은 부인이 임신할 수 없을 경우, 첫 번째 부인이 허락할 경우, 1백만 루피아의 지방세를 납부(1회)할 경우 가능하다. 이는 자동으로 지방정부 수입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일단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점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내무부 대변인은 “동부롬복군의 이번 지방규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현행 지방세법에 그런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규정이 중앙정부를 통해 검토되면 당연히 폐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공무원이 일부다처제를 원할 경우 첫 번째 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결혼 후에는 모든 부인들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이들의 가계를 지원해 줄만한 재력의 소유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부인과 결혼 후 10년간 자녀가 없거나, 부인이 남편의 동의없이 2년 이상 별거한 경우 남편은 두 번째 부인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Jakarta Biz Daily
Patra Office Tower 15th Fl 1501A
J. Jend. Gatot Subroto Kav. 32-34
Jakarta Selatan 12950

日 시미즈건설, 인니 최고층빌딩 건설 수주 성공

일본의 대형 건설사 시미즈 건설이 인도네시아의 '아스트라 인터내셔널(PT Astra International Tbk)' 그룹으로부터 인니 최고층 47층 빌딩 건설 수주에 성공했다.

수주액은 약 1억 7천만불이다. 이 빌딩은 철근 콘크리트(RC) 건물로 지하 6층, 지상 47층으로 상층 구조물까지 포함하면 전체 261.5m 높이로 인도네시아 최고층빌딩이 된다.

이 건물은 수디르만 대로의 1만 5천 제곱미터 부지 위에 세워지며 총 면적은 16만 5천 제곱미터다.

오늘 2018년 1월 준공되었으며 향후 아스트라 본사 건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현지 최대 민간건설사인 토탈 방운 빠르사다(PT Total Bangun Persada)와 함께 설립한 합자회사 명의로 시미즈건설이 60%의 지분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미즈 건설은 현재 토탈방운사와 공동으로 수주한 현지 최대 미디어그룹 MMC사에서 발주한 MNC Media 복합타워(39층·높이175m)도 시내 중심가에 건설 중이다.

그간 시미즈건설과 토탈방운사는 공동으로 인도네시아에 10여개의 고층빌딩을 성공적으로 완공한바 있다. 금번 프로젝트 발주처인 아스트라 그룹은 외국업체가 현지 업체와 원활한 파트너쉽 운영과 사업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이룬 점을 높이 평가하여 발주처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미즈 건설은 아스트라사로부터 발주서는 이미 접수하였고 조만간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밝혔다.



조꼬 위도도 대통령 사진 사세요~

자카르타 빠사르 바루에서 지난 24일 상인들이 조꼬 위도도 대통령과 유습갈라 부통령의 공식 사진을 액자에 넣어 판매하고 있다. 이 사진은 크기에 따라 개당 15만~25만 루피아대에 판매되고 있다. 판매된 데 7대 대통령과 부통령의 사진은 각 공공기관 사무실, 학교 등에서 유도요노 전 대통령과 부디오노 전 부통령 사진과 교체된다. 사진=아딧야(Aditya)



육교 없앤다더니 난데없이 청소 열심인 주정부 자카르타 호텔인도네시아 로터리에 있는 육교위에서 24일 청소부가 육교 청소에 바쁘다. 자카르타주정부는 MRT(지하철) 건설 계획에 따라 일부 구간에 위치한 육교를 철거할 예정이지만 기존에 없었던 육교청소 계획을 수립했다. 시민들은 이 예산을 '눈 먼 돈'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사진=아딧야(Aditya)

그때 우리는 맨몸이었으나

-한인 세대가 남기는 메시지-

박정자

우리 이 땅에 뿌리 내린지 어언 70년
검었던 머리에 서릿발 맞도록
낯선 풍토와 이방의 언어를 몸에 감고서
적도의 태양처럼 강인해졌다

그때 우리는 맨몸이었으나
누구도 꺾지 못할 열망과 도전정신,
한민족의 강철심장이
우리를 이끌었지

우리의 무릎이 새 길을 열고
우리의 어깨가 굳건한 공동체를 이루어
역사의 책을 쓰는 현장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으니
도도한 강물처럼 막힘없이 흘러서

70년을 넘어 또 다시 70년
이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쓰자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다
이제 이곳은 우리들 삶의 터전
이 땅에 그대들 자신을 내놓으시라
꿈꾸는 미래에 과감하게 도전하시라

야자나무처럼 높이 솟는
그대들 가슴에
단단한 열매가 맺으리니

박 정 자 1991년 등단
시집 <그는 물가에 있다> 등 6권
현재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부지부장,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

-제2회 종합예술제에서



인니생활의 행복 점검



서 미 숙 / 수필가, 시인
gaeunsuh@hanmail.net

최 근 인도네시아에서 오래 살아온 지인들과의 티 모임에서 이곳 인니생활에 과연 만족하느냐에 대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 예전 같지 않고 이제는 자카르타에서 사는 일도 만만치가 않아요.’ 또 교통은 가는 곳 마다 안 막히는 곳이 없네요’ 등등 인니생활의 고충을 털어 놓곤 한다. 현재 이곳 인도네시아의 한국교민 수는 어림잡아 5만 명을 헤아린다. 성공 반열에 오른 한인기업가들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옛날에 비해 현지종업원들의 월급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도 꺾충 뛰었기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늘 넘어야 할 산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을 떠나와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삶을 이루

고 있는 많은 지인들은 어떠한 사유가 되었건 이곳의 좋은 점을 늘어놓곤 했었다. 그러나 그것도 옛날 말이지 요즘은 한국보다 월등하게 좋은 점을 꼽으라면 막상 이거다 하며 떠오르지가 않는다고 한다. 예전에는 나름대로 이곳 인니의 생활환경이나 물가 등을 고려해 보면 한국보다 누릴 수 있는 점이 훨씬 많았다.

이곳 한인주부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집안일을 도울 수 있는 가사도우미도 있고 또 운전수도 항시 대기하고 있어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음을 주변사람들을 통해 느끼게 된다. 그 속에서 인간의 행복에 대한 나름대로의 받아들임을 생각해 보았다. 육

체적인 노동이 조금 덜어졌다고 그것이 곧 마음에서 얻는 행복지수와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다. 정서와 문화차이에서 오는 가사도우미와 운전수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결코 가볍지가 않기 때문이다. 주재원으로 또는 개인 사업가로 아니면 삶의 변화를 피하기 위하여 이곳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한인들이 정착하여 나름대로의 삶을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적인 장소와 환경만 다를 뿐이지 삶의 방식은 국내나 이곳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환경에서 오는 행복지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염원은 어찌면 한국에서 보다 더욱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생활하면서 각기 다른 인생과 삶을 살고 있다. 누구나 현재의 입장에서 행복의 기준을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다.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행복과 불행의 잣대도 기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들보다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고 행복하고 그렇지 못해서 불행하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본다. 일반적인 단순기준으로 판단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족할수록 불행과 직결된다고 믿고 있다. 그런 논리를 전혀 배제 할 수야 없겠지만 과연 집안에 근심걱정이 하나라도 없는 집이 있을까? 날마다 좋은 환경에서 물질적인 걱정이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도 한 가지 이상의 불평과 근심은 있을 것이다. 조그마한 기쁨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즐거우나 만족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근심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는 선현의 말씀이 있다. 행복은 추구해야할 목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성취감에서 얻는 기쁨이다. 더 나은 계획과 목표를 세워

이루어낸 나만의 자존감이라고 생각한다. 행복은 산 너머 무지개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매순간마다 언제든지 우리 곁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해외에 살고 있는 까닭에 많은 한인들은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해마다 한국을 찾는다. 육체적인 건강검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신이 건강한지 내 영혼이 평화로운지 마음의 행복도 해마다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이곳 인도네시아에 살아오면서 마음 안에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곧,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10월에는 이곳 한국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한·인니 문화축제와 한인들의 예술단체인 문예총 종합예술제로 마음이 풍요로운 한 달을 보냈다.

물론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화축제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본인들의 삶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이번 문화축제를 함께 참여하고 지켜보면서 자신만의 특기나 취미활동으로 열정을 쏟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에서 진정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미소를 보았다.



바쁜 삶속에서 지쳐있는 내 자신에게 또는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는 내 자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인격을 갖춘 반면에 정작 지쳐있는 자신에게는 고맙고 감사함을 표현하는데 익숙지가 않다. 고마움의 표현이란 바로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음은 나만의 행복을 점검하는 힐링의 시간이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누군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비록 눈으로 보여 지는 물질적인 소득이 없다 해도 말이다. 아무리 부와 권력을 가졌다 해도 내가 기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들에게는 행복

을 결정하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의미를 가져다주는가?

내가 진정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일인가? 두 번째는 나와 내 가족과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은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사람들의 행복의 열쇠라고 한다.

우리는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기에 나와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등 이런 관계들이 원만하고 행복해야 삶도 행복한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이 참다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이곳, 인도네시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끔은 행복을 점검해보자. 분명 나 자신만을 위한 뜻 깊은 힐링의 시간이 되어줄 것이다.



독립의 거리, 예술의 거리 멘뎡(Menteng), 찌끼니(Cikini) 탐방



지난 9월 27일 아침 8시, 한*인문화연구원 에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조태영 주인니 한국 대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한 대사관 가족들과 우리 연구원 회원들이 함께 ‘스토리가 있는 예술의 거리’ 탐방을 위해 모였어요.

오전에는 네덜란드 통치 시절에 유럽인을 위해 만든 거리로, 네덜란드인의 영광과 독립의 열기를 간직한 멘뎡(Menteng)을 찾았습니다. 멘뎡에는 대사관저와 고위관리의 사택들이 많았고 뒷골목에는 예쁜 집들이 많았습니다. 수로빠띠 공원(Taman Suropati) 혹은 아세안 조각 공원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에는 아세안 최고의 조각가들의 예술적인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부근에 줄지어 서 있는 나무도, 1920년대 집들도 예술적으로 느껴집니다. 멘뎡 31의 독립투쟁 박물관 Museum Joang 45는 1945년-1950년 독립 투쟁사를 전시·보관한 박물관입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젊은 박인환의 시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바치는 노래’의 한 구절처럼 “우리와 같은 식민지의 인도네시아여, 해류가 부딪치는 모든 육지에선 거룩한

인도네시아의 내일을 축복한다.” 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직 ‘독립’이라고 울부짖는 인도네시아 젊은 독립영웅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투쟁관(館)으로 들어가면 수디르만 장군이 가마 위에서 독립전쟁을 지휘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과 당시의 가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독립전쟁 말기에는 폐병으로 몸이 아파서 죽을힘을 다해 가마를 타고 이동하면서 전투를 지휘했다고 합니다. 장군의 불멸의 정신이 우리를 전시물 앞에 오래도록 머물게 합니다.

또한, 멘뎡에는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독립선언문작성박물관(Jl. Iman Bonjol No.1)이 대한민국 대사관저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1927년, Mohammad Hatta, Sutan Syahrir와 Soekarno를 중심으로 독립을 위한 PNI(Partai National Indonesia)가 설립되었고, 일본 통치시절부터 멘뎡 31을 중심으로 이들 젊은 독립 운동가들의 투쟁이 시작되었지요.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항복한 이후엔 멘뎡과 찌끼니(Cikini)를 중심으로 독립의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독립 후에 찌끼니는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된답니다. 우리는 TIM(Jl. Cikini Raya 73)으로 잘 알려진 따만 이스마일 마르주끼 뒤에 있는 자카르타 예술전문대학교(Institut Kesenian Jakarta, IKJ. 1970년 개교, 4년제 대학)를 찾았습니다. 이 학교는 각 지방에서 온 예술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자카르타 예술대학교에서는 저희들을 위해 간단한 다과와 환영 공연을 준비해 주었고, 부학장님과 패션학과 학과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학교를 안내하셨습니다. 대사님께서 진지하게 학생들의 작품을 보시면서 학장님과 인도네시아 예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화, 예술 교류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예감을 가지게 했습니다.

찌끼니 병원 본건물의 뒤쪽에 있는 별관은 근현대 인도네시아 미술의 초석을 놓았던 라덴 살레의 자택이었던 곳으로,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았습니다. 동서양 어느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그가 이렇게 예쁜 집에서 살면서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20세기 초반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유행했던 건축양식인 아르데코 풍의 최초의 우체국 KANTOR POS CIKINI (Tjikini Post Kantor), 수카르노 자녀들이 다녔던 자카르타 최초의 중학교 SMP Negeri I를 지나며 최초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네덜란드 식민시절 이민국 건물을 갤러리 레스토랑으로 개조한 Resto & Galeri Tugu de Kunstkring에서 ‘디뵤네고로의 체포(Pangeran Dipenogoro)’라는 큰 그림을 감상하면서 버마



Kantor Pos Cikini



Rumah Sakit Cikini

위(Betawi) 전통 음식으로 점심을 먹고 갤러리를 둘러보았습니다. ‘예술의 명소’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갤러리 레스토랑은 1913-1914에 지어진 100년이 된 건축물로, 근대 자카르타의 저명 인사들이 즐겨 모이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있는 달걀공예로 만든 조명등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보입니다. 레스토랑 옆에는 모닝커피를 마시고 싶은 카페도 있습니다.

점심 후에는 잘란 수라바야(Jl. Surabaya)로 이동, 오래된 골동품 거리를 거닐며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함께 하였지요. 마지막엔 더블 트리 호텔

에 들러 시원한 레몬에이드와 화덕피자를 먹으며 오늘 탐방을 마무리했습니다.

탐방을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엔 탐방 회원들을 위해 피자 간식까지 흔쾌히 사주신 임경애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민들과 함께 어울려 친근한 모습으로 문화 탐방에 참여하시는 대사님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탐방을 마치며, 예술은 무한히 열려있는 미궁의 세계이며 작은 지혜로는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세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한*인니문화연구원 제공)





전통 서빙 방식 rijsttafel로 유명한
오아시스 레스토랑 (RESTAURANT OASIS)

사공 경(한*인니문화연구원장/한국문인협회인도네시아지부장)

오아시스 레스토랑에 들어서면 가믈란 음악과 큰 징소리가 방문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징은 18세기 때 중부 자바의 왕궁에서 사용하던 것이다. 리셉션 룸에서는 전통 복장을 한 직원들이 꽃을 달아주고 활짝 웃으면서 손님들을 맞이한다. 반바지 차림의 복장이라면 이곳에서 주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오아시스는 1991년 10월 30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요리 솜씨가 좋은 레스토랑으로 선정되어 영예로운 관광(Adikarya Wisata) 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날이 오아시스의 전통 서빙 방식인 rijsttafel의 호스트 말리아 수나리오(Mrs. Malia Soenario)의 80회 생일이기도 했다.

1928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차, 고무, 키니네나무 농장을 여러 개 소유한 네덜란드의 백만장자 브란덴부르크(F. Brandenburg van Oltsende)의 자택이었다. 그 당시에는 자카르타의 최고급 주택으

로 네덜란드 건축 스타일인 래플즈 시대의 양식으로 지어져 천장도 높고 벽에 나무 장식도 많고, 바닥이 흑백 타일로 꾸며져 있다. 세계 제 2차 대전 때는 일본의 끊임없는 폭격을 피해 네덜란드의 마지막 총독이 화려한 대통령궁(Koningsplein Paleis: 현 Istana Merdeka)을 뒤로 하고 이 건물로 피신했다. 제 2차 대전 후 이곳은 미국 해군 공관으로 사용되어 해군들의 파티장이 되기도 하였다.

주된 공간은 수마트라 룸(Ruang Sumatera)인데 내부 벽에 금실로 짠 수마트라에서 가져 온 엔틱 수직(ikat)으로 장식되어 있다. 스테인드글라스에 그려진 기사상은 첫 주인인 브란덴부르크 가문의 문장이다. 깔리만탄 룸(Ruang Kalimantan)에는 그 지역의 가면과 조각상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고전적인 분위기의 스탠드바가 있다. 가면 바(Bar Topeng)는 이름대로 가면과 인도네시아 현

대 미술의 대가 헨드라(Hendra)의 그림으로 꾸며져 있다. 오아시스에는 헨드라 그림 30점이 소장되어 있고 Affandi(아판디) 그림도 전시되어 있다. 헨드라 작품은 우울하면서도 무게가 있는 작품으로 오아시스의 엔틱 장식품과 어우러져 예술성이 돋보인다. 왕 룸(Ruang Raja)은 3대 대통령 하비비가 좋아했다고 알려진 방인데 발리와 족자의 조각이 우아한 디자인으로 장식되어 있다. 자바 룸(Ruang Jawa)과 정원 테라스 룸(Ruang garden terrace)은 아름다운 정원을 향하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연회실에는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1466-1536)를 위해 만든 커다란 스테인드글라스가 있고, 그가 남긴 말이 적혀 있다. 연회실은 담장을 깔리만만 목상으로 꾸민 이탈리아식 정원으로 이어져 있어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뿐만 아니라 오아시스에는 즐길 수 있는 예술적이고 값진 것이 많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벽에는 이리안자야의 원시적인 예술품으로 장식되어 있다. 리셉션 룸에 이곳을 찾아 온 대처 수상, 말레이시아 수상, 영국 여왕, 클린턴 대통령과 영부인 힐러리 사진이 전시되어 있어 오아시스를 더욱 빛내준다. 클린턴부부 사진은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 APEC 회의가 열렸을 때 이곳에서 만찬을 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다.

이곳은 1970년에 레스토랑으로 바뀌었으며 네덜란드 식민시절에 네덜란드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서빙 방식인 rijsttafel(rice table)로 유명하다. 인도네시아 각 지방의 다양한 전통 음식과 여러나라에서 영향 받은 인도네시아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rijsttafel의 어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 네덜란드 말인 table에서 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테이블 가운데 원뿔모양으로 쌓은 밥이 있고 주위에 음식 담을 접시 6-8개를 놓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rijsttafel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네덜란드 농장의 홈파티에서 유래되었으며, 푸짐하게 먹는다는 의미로 파티를 뜻하는 마칸 브사르(Makan Besar)를 의미한다. 차차 발전하여 전통 복장을 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직접 서빙해 주었다. 독립 이후 네덜란드 문화에 대한 배척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우아한 네덜란드 식식사법은 한동안 사라져갔으나 1976년부터 오아

시스에서 재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통 복장을 한 12명의 웨이트레스가 엔틱 접시에 인도네시아 향료로 양념된 전통 음식(생선 고기, 야채, 삼불 등)과 여러 종류의 네덜란드 음식을 들고 테이블로 온다. 전통복장 행렬로 두 차례 와서 직접 덜어준다. 이 화려한 서빙은 한때 세계에서 단 한 곳 오아시스에서만 받아들 수 있었으나 요즘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 오아시스의 음식은 짜지도 맵지도 않은 부드러운 맛으로 유명하다. 특히 계살로 만든 오믈렛, 사뎀, 옥수수 디저트가 일품이다. 자카르타에서 가장 음식 값이 비싼 곳인데 분위기에 젖어보면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우아한 서빙을 받으며 감미로운 목소리로 부르는 70~80년대 팝송을 듣고 있노라면 사랑의 물결이 흐르던 대학가(大學街)의 카페가 생각난다. 잠시 몽상에 이끌리어 아득히 나를 부르는 소리에 취해 오늘 하루 정도는 <로마의 휴일>의 오드리 헵번이 되어 로맨틱한 정원에서 그레고리 팩을 만나도 좋으리라. 이태리식으로 꾸민 이국적인 정원에서 반짝이는 별빛 아래서의 무도회장을 상상해 보라. 어느 새 밤 8시. 떠들썩한 분위기의 풍부하고 볼륨 큰 목소리의 바빠죽 악사들이 기타를 메고 나타나 테이블마다 돌며 여러나라 사람들의 신청곡을 불러준다. ‘아리랑’, ‘사랑해’ 를 불러 줄 때면 아득한 그리움 하나로 마음이 모아진다. 밤 9시, 다시 살며시 스쳐가는 팝송에는 나를 부르는 청춘의 향기가 있다. 이렇게 오아시스에서의 밤은 호젓이 타오른다.



주소: Jl. Raden Saleh Raya No. 47
Jakarta Pusat 10330

개점: 매일 11:00 ~ 15:00 | 18:00 ~ 22:00
폐점: 일요일, 공휴일 전화: (021) 3150646
이메일 : reservation@oasisjakarta.com
웹 사이트 : http://www.oasisjakarta.com

시르삭(Sirsak)

신맛 주머니



일반명: 인도네시아(Sirsak), 말레이시아(Durian belanda), Thu-rian-khaek(태국)
과 명: 아노나과 (Family: Annonaceae)
학 명: *Annona muricata* L.
기원지: 중남미(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남아메리카 북부지역 저지대
분 포: 열대아시아, 열대아프리카 저지대
이 용: 생과일, 주스, 디저트(아이스크림, 셔벳, 젤리)
모 양: 열매가 크고 모양이 불규칙하며 어두운 녹색 껍질에 가시 돌기가 있다.

백진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니생물소재연구센터장)

시르삭은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과일입니다. 울퉁불퉁한 모양새와 짙은 녹색껍질에, 뾰족한 가시가 퍼져있는 모습이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르삭의 이국적이며 오묘한 맛에 익숙해지고 효능에 대해 알게 된다면 충분히 가까이할 만한 과일입니다.

시르삭의 모양

외형은 원형보다는 심장 모양에 가깝고, 크기는 15~35cm, 폭 10~30cm, 무게는 약 1~10kg 정도입니다. 성숙한 것은 표면이 녹색이며 고깔 모양의 작은 가시돌기가 퍼져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기 위해선 크기가 커서 칼로 잘라야 하는데 세

로로 잘라보면 가운데 축을 이루는 부분과 흰 속살이 보이고 중간마다 까맣고 광택이 나는 씨가 들어있습니다. 속을 먹어 보면 주로 신맛과 단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맛이 납니다. 우윳빛의 부드러운 육질이 풍부하여 크림 같은 식감이라 마치 아이스크림에 달콤한 향과 약간의 신맛을 가미한 듯한 오묘한 맛이 납니다.

이용 및 가공

시르삭은 여러 종류의 품종이 있습니다. 당도(sweetness)나 산도(acidity) 혹은 과육의 질감(texture) 등이 다양한 편입니다. 시르삭은 나무에서 바로 따서 생과일로 먹기도 하고 주스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설탕과 우유를 섞어 커스타

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공해서 도돌(dodol)이나 주스, 잼, 셔벗,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며 맛을 더하는 첨가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더러 발효시켜 과일주로 먹기도 합니다. 영양학적으로는 탄수화물과 비타민 C, B1, B2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르는 법

열매의 가시가 적고 가시 끝의 검은 점이 커지면서 향긋한 냄새가 나며 연한 녹색을 띤 것이 잘 성숙한 것입니다. 약간 노란빛이 돌 때 나무에서 따서 약 2~3일 두면 후숙이 되어 먹기에 가장 좋습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달콤한 향기가 나면서 짙은 녹색에 약간의 노란색이 보이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색이 거무스름하게 변해가거나 곰팡이가 끼어 있는 것은 오래된 것이어서 무르고 맛이 없습니다. 성숙한 열매는 멍이 잘 들고 상하기 싫기 때문에 운송시에는 조금 딱딱한 것을 고릅니다.

의약적 사용 및 잠재가치 연구

일반적으로 성숙한 과일의 주스는 이뇨제와 요도염 치료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민간에선 잎과 뿌리를 설사, 궤양, 어지럼증, 류마티스 등 여러 증상 치료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간 질환의 완화와 한센병 치료에도 일부 효험이 있다고 하며 덜익은 과일을 분쇄하여, 매우 수렴성이 강하기 때문에 달인 물을 설사 치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남미 지역에선 피부속의 털진드기(chiggers)를 빼내고 빠른 상처 치료를 위해 신선한 시르삭 과육을 으깨어 상처부위에 붙여 찜질약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시르삭의 잎은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데 이는 수면을 유도하는 성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잎을 달인 물을 마시거나 혹은 신선한 잎을 단순히 베게 밑에 잎을 놓아두어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열을 내리거나 설사나 괴혈병을 다루는데 사용되었고 전통적으로 피부의 상처치료를 위한 찜질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종자는 독성이 강하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머리의 이(lice)를 제거하는데 사용한 것처럼 씨앗을 갈아서 살충제 및 구충제로 사용했습니다. 최근의 연구결과 씨앗에는 여러 성분 중에 ‘아노나신(Annonacin)’이라는 신경독성물질이 함유되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토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한 연구에 의하면 아노나신 대량 섭취와 비정형성 파킨스병의 발병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이 과일을 즐겨먹는데 아침에 한개씩 갈아 주스로 온 가족이 나누어 마신다고 합니다. 출산한 여성의 젖분비를 돕는다하여 출산 후 여성들에게 권장하는 과일이며 혈압을 낮춰주고 심박수를 조정해주며 혈관을 넓혀준다하여 고혈압 환자들에게도 적극 권하는 과일이라 합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민간의 설은 이 과일이 가지는 특별한 신맛으로 인해 살충 작용의 효과로 기생충 제거와 장염으로 인한 설사의 치료에 유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과장되게는 자연 항생제에 비유하며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에선 시르삭이 ‘그라비올라(gravivola)’라는 이름으로 암 치료의 대체 요법으로써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항암, 항종양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유방암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나 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과장된 것입니다. 실험실 수준의 일부 세포 대상의 연구 결과일뿐이며 아직 임상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시르삭의 성분과 효능은 계속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못생긴 과일이지만 오묘한 맛과 영양으로 꼭 찬 시르삭이 조만간 그 가치가 인정받게 되어 중요한 과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Warning!

위의 글은 유익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전문가와의 상의 없이 특정 증상의 완화나 치료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합니다!



부동산 양도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필자는 1971년 4월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여 지금까지 살면서 43년 동안 인도네시아 부동산 값이 내려가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부동산 값은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인도네시아 부동산 시장은 경기에 따라 부동산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는 너무 다른 아주 특별한 믿음직한 시장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은 아파트 건축이 많아지고, 한 인도네시아인들의 주거가 독립주택에서 아파트로 옮겨지면서 아파트 값이 한인도네시아인들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었다. 고소득층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고급 아파트는 아직은 남구에 집중되어 있으나, 고급 아파트 건축이 북구 및 서구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 건축이 외곽지역과 Bekasi(버카시), Tangerang(탕어랑), Depok(데팍) 등 위성 도시에서 활발하다. 아파트 매입 시 등기권리증서가 나와 있는 아파트 매입은 매매증서(Akta Jual Beli/AJB)에 서명하고, 대금을 지불하고, 명의를 변경하면 되나, 신축 아파트 매입은 Order Sheet에 서명 후 통상 4년-5년이 지난 후 등기권리증서를 받게 됨으로 매입자 입장에서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부동산 소비자 보호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50 페이지 - 60 페이지에 달하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매매약정서(Perjanjian Pengikatan Jual Beli

atas Satuan Rumah Susun/PPJB),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Surat Perintah Kerja) 및 위임장(Surat Kuasa)을 보면 답답해지지 않을 수 없다. 아파트 건축 기간이 길고 등기권리증서를 받기 위한 매매증서 서명 시기까지 여러 해가 소요되고, 아파트 등기권리증서가 나오기 전에 PPJB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매매증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PPJB에 서명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가 많아지자, 최근에 국세청장이 PPJB 상의 아파트 값과 PPJB 양도 값의 차액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라는 내용의 업무수행지침서(Surat Edaran)을 국세청 산하 기관에 내렸다.

1. 부동산양도 소득세 징수 지시 국세청장의 업무수행지침서

2014년 8월 14일 자 국세청장 업무수행지침서 제 SE-30/PJ/2014 호(Surat Edaran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SE-30/PJ/2014 tentang Pengawasan Atas Transaksi Pengalihan Hak Atas Dan/Atau Bangunan Melalui Jual Beli) 근거 법규는 다음과 같다.

- 2.1. 소득세에 관한 1983년 법률 제7호(최종 개정 2008년 법률 제 36 호).
- 2.2. 부동산 양도소득세 지불에 관한 1994년 정부령 제 48 호(최종 개정 2008년 정부령 제 71 호).

- 2.3. 부동산 양도소득세 지불에 관한 재무부장관 규정 제 635/KMK.04/1994 호 (최종 개정 재무부장관규정 제 243/PMK.03/2008 호).
- 2.4. Final(최종) 부동산 양도소득세 지불에 관한 국세청장 업무수행지침서 제 SE-30/PJ02013 호.

2. 세법상 부동산 권리 이전 형태

인도네시아 세법에서 보는 부동산 권리 이전 형태는 다음과 같다.

- 2.1. 매매 (Jual Beli)
- 2.2. 교환 (Tukar Menukar)
- 2.3. 증여 (Hibah)
- 2.4. 유언 증여 (Hibah Wasiat)
- 2.5. 상속 (Waris)
- 2.6. 출자 (Pemasukan dalam perseroan atau badan hukum lain)
- 2.7. 권리분리 (Pemisahan hak yang mengakibatkan peralihan)
- 2.8. 낙찰 (Penunjukan pembeli pada lelang)
- 2.9. 확정판결문집행 (Pelaksanaan putusan

- hakim yang berkekuatan hukum tetap)
- 2.10. 합병 (Penggabungan usaha)
- 2.11. 통합 (Peleburan usaha)
- 2.12. 분리 (Pemekaran usaha)
- 2.13. 신 권리 (Pemberian hak baru)
- * 최근 국세청장이 내린 부동산소득세 징수 업무 지침 대상은 매매 형태이다.

3. 고시지가 (Nilai Jual Objek Pajak/NJOP/*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정부에서 정한 시장가)

인도네시아 정부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고시지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NJOP는 부동산 양도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과세, 감정가, 공매가 등에 기준으로 삼는 중요한 기준이다. NJOP는 대부분 시장가보다는 낮게 되어 있으나 매년 인상 추세이다. 2014년 자카르타 지역 NJOP는 2013년도에 비해 평균 100% - 240% 인상이 되었으며 재산세도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고가 부동산이 집중되어 있는 자카르타 남구 주요 지역의 2014년도 NJOP는 다음과 같다.

지역	2013년도	2014년도	인상율
Jl. Jenderal Sudirman	31,875,000.00	66,904,000.00	110%
Jl. Manggis Dalam II	702,000.00	1,032,000.00	47%
Jl. Gatot Subroto	28,000,000.00	59,000,000.00	111%
Jl. Rasuna Said	27,000,000.00	41,000,000.00	52%
Jl. Cilandak	3,031,761.00	4,311,088.00	42%
Jl. Jagakarsa	1,167,682.00	2,796,625.00	149%
Jl. Pasar Minggu	2,355,400.00	4,728,925.00	101%
Jl. Pesanggrahan	1,495,400.00	3,097,209.00	107%
Jl. Setiabudi	9,875,296.00	15,138,319.00	53%
Jl. Mampang Prapatan	4,567,015.00	8,494,649.00	86%
Jl. Kebayoran Baru	6,612,979.00	13,567,668.00	105%
Jl. Kebayoran Lama	2,748,586.00	5,080,791.00	85%
Jl. Pancoran	2,967,342.00	4,204,405.00	42%
Jl. K. Permai Pondok Indah	8,000,000.00	28,800,000.00	260%
Apt. N. Hijau Pondok Indah	8,000,000.00	28,000,000.00	250%
Apt. Bukit Golf	11,000,000.00	19,000,000.00	73%
Jl. Gedung Hijau	8,000,000.00	15,000,000.00	88%

4. 부동산양도세(Final)

4.1. 실 거래가와 NJOP 중 더 높은 가격이 과세기준이며 세율은 5%이다.

실 거래가는 Rp.150억이나 NJOP는 Rp.100억인 경우에 법규상으로는 실 거래가인 Rp.150억 x 5% = Rp.7억 5천만의 부동산양도세를 선납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절세하기 위하여 NJOP인 Rp.100억 x 5% = Rp.5억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4.2. 부동산양도세는 부동산매매증서(AJB) 서명 전에 선납해야 한다.

4.3. 부동산 양도 시 마다 해당된다.

5. 부동산양도 소득세

상술한 “1항” 의 2014. 8. 14. 자 국세청장 업무수행지침서 제SE-30/PJ/ 2014 호(Surat Edaran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SE-30/PJ/2014 tentang Pengawasan Atas Transaksi Pengalihan Hak Atas Dan/Atau Bangunan Melalui Jual Beli)의 본질이 부동산 양도 소득세 징수이다.

A씨가 2010년 1월 3일 B사와 Rp.50억에 아파트 매매약정서(PPJB)를 체결하고 아파트 대금을 완불 후 3년이 지난 2014년 1월 3일에 Rp.75억에 C씨에게 매각했으나, 등기권리증서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PPJB 만 권리만 C씨에게 넘겼다. 이런 경우에 A씨는 등기권리증서 명의변경없이 전매로 Rp.25억의 차익을 얻었으며 이 차익 Rp.25억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개인 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처음 Rp.5천만은 5%
- 이후 추가 Rp.5천만 - Rp.2억5천만은 15%
- 이후 추가 Rp.2억5천만 - Rp.5억은 25%
- 이후 잔액은 전액 30%

* A씨의 부동산양도 소득세를 계산해본다.

- Rp.5천만 x 5% = Rp.2백5십만

- Rp.2억5천만 x 15% = Rp.3천7백5십만
- Rp.5억 x 25% = Rp.1억2천5백만
- Rp.25억 - (Rp.5천만+Rp.2억5천만+Rp.5억) x 30% = Rp.5억1천만 + 부동산양도 소득세 총액 : Rp.6억7천5백만

6. 부동산 취득세(Bea Perole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BPHTB)

6.1. 실 거래가와 NJOP 중 더 높은 가격이 과세기준이며 세율은 5%이며,

지방에 따라 다르게 일정액의 비과세 기준(NPOTKP/Nilai Perolehan Objek Pajak Tidak Kena Pajak)을 두고 있다. 자카르타 남구에 위치한 Rp.150억 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취득세는 다음과 같다.

- (Rp.150억 - Rp.8천만) x 5% = Rp.7억 1천만

6.2.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매매증서(AJB) 서명 전에 선납해야 한다.

7. 신축 아파트 매매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 7.1. 양도세 : 개발업체 부담
- 7.2. 부가가치세 : 10%
- 7.3. 호화물품세(면적 150 M2 이상 아파트) : 20%
- 7.4. 취득세 : 5%(일정 비과세액 공제 후)
- 7.5. 매매증서 작성 공증인비
- 7.6. 등기권리증서 명의 변경비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면 알아차리세요!

17. 배가 울퉁불퉁하고 부어 보인다

- 간경변 배꼽을 중심으로 복벽의 정맥이 좀 부풀어 보이는 일이 있다.

이러한 징후가 보일 때는 간 중심으로 한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한 경우로 간경변을 의심.

18. 음식물이 목에 걸린다

- 식도암 목에서 위까지 걸쳐 음식물을 먹었을 때 거부감이 있거나 부감이 있거나 음식물이 걸리는 느낌이 있으면 주의가 필요하다.

의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음

19. 오른쪽 배가 아프다

- 맹장염 윗배가 아프고 메스거린다

오른쪽 배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 충수염(맹장염)일 가능성 높음.

20. 가슴에 손을 대면 박동치는 곳이 여러군데 있다

- 심신장애 가슴, 특히 왼쪽 유방 밑 근처에서 박동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움직이는 곳이 한 곳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느껴질 때는 심신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21. 하얀 혀가 말해주는 건강 신호

거울을 통해 혀바닥이 하얗게 변한 것을 발견하고 당황한 적이 있는가?

그것은 최근에 열이 있었다는 증거다.

열이 없었다면 흡연자이거나 입으로 호흡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이며, 섬유질 함유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다.

만약 혀가 지나치게 매끄럽고 창백하다면 엽산, 비타민 B12, 철분같은 영양소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체크해보자.

유난히 매끄러운 혀는 신체가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장 관련 질환인 '흡수장애증후군'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

22. 변 색깔로 숨은 질환을 찾는다.

검은 변 색깔은 소화기 계통의 건강 신호.



소화불량인 사람이 타르같이 검은 변을 본다는 것은 십이지장에 궤양 출혈이 있다는 신호이며, 지속적으로 옅은 색 변을 본다면 담관이나 췌장에 종양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변에 기름기가 있고 악취가 난다면 평소 먹는 음식에 지방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닌지 체크해 봐야 한다.

또 어린이의 경우 복통과 함께 콧물 같은 점액질 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맹장염일 가능성이 크므로 서둘러 진찰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23. 안구 돌출은 갑상선기능 항진증의 신호

만약 태어날 때부터 안구가 돌출되어 있었다면 안심해도 괜찮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돌출된 경우라면 갑상선기능 항진증의 심각한 신호일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갑상선으로 인해 안구가 돌출될 확률이 5배나 높으므로 평소 안구 상태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안구가 몸의 이상으로 돌출된 것인지, 그냥 튀어나온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눈의 흰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단순히 눈이 튀어나온 경우라면 눈의 흰 부분이 홍채 맨 위와 윗눈꺼풀 사이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안구가 돌출된 경우에는 홍채 위나 아래에 있는 흰 부분이 보인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드라마에서 배우는 BAHASA



허영순/OKTN (KBS WORLD)

가족끼리 오빠 / Ada Apa Dengan keluargaku

차 씨 집안의 막내아들 차달봉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서울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속마음과는 다르게 계속 서울이와 부딪히고 우왕 자왕하며 하루 하루 보내던 어느날... 서울이가 개울가에서 구해준 첫 키스의 상대가 달봉이가 아닌 윤은호 입을 고백한 후 본심은 숨기고 ... 서울이와 어색해지는게 싫어서 서먹해지는게 싫어서 친구로 지내자고 합니다.

사진 #1

어색하다 :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 잘 모르거나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만나거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표현되는 단어로 불편하다. 낯설다, 망설이다 등등 비슷한 뜻을 지니지만 다르게 표현되는 단어들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인니어로는 어색하다 Canggung 이라는 단어와 뜻을 같이하는 Asing, kaku, kikuk, Segan, Sungka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canggung = Cang. gung 어색하다라는 뜻으로 뭔가 미숙해 보일 때 (습관이 안돼서) , /무언가를 잘 다룰 줄 몰라 어색할 때, 익숙지 않거나 부끄러움을 느낄 때, 경직되어 있는 느낌이 들 때 (Kaku)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울리지 않을 때 등을 표현한다.

- 1 kurang mahir atau tidak terampil dl menggunakan sesuatu (karena belum biasa mengerjakannya); kikuk; kekok;
- 2 kurang enak dipakai; tidak mudah digunakan;
- 3 merasa tidak senang (tidak bebas); malu-malu (krn belum biasa bergaul, belum mengerti adat kebiasaan yg berlaku);
- 4 kaku (dl arti kurang mengerti basa-basi, adat sopan santun)

- Budi seorang kidal sehingga dia akan merasa canggung bila makan dengan tangan kanan.

부디씨는 왼손잡이 어서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면 어색하다.

Asing = A. sing = 은 낯설다, 외국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며 고립되거나, 배타적인 느낌을 받을 때 사용되는 단어로 이상함, 뻘뻘함을 뜻하며 다르다 라는 뜻도 포함한다.

- 1 aneh; tidak biasa v bersekolongkol;
- 2 belum biasa; kaku;
- 3 datang dr luar (negeri, daerah, lingkungan);
- 4 tersendiri; terpisah sendiri; terpencil;

- Kita semua berstatus orang asing selama tinggal di Indonesia.

인도네시아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외국인 신분으로 지낸다.

kaku = Ka.ku = 뻘뻘한, 딱딱함 고집 센, 유도 리가 없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단단해서 구부려 지지 않는 강직함, 거칠거나 단단함, 생각이 유연하지 않은, 거친 등을 표현 한다.

- 1 keras tidak dapat dilenturkan; kejur; kejang;
- 2 keras dan liat (tt daging dsb);
- 3 ki janggal; Setelah melakukan beberapa kali negosiasi, akhirnya;
- 4 sukar diberi tahu (menerima pendapat orang); tidak lemah lembut (tidak mudah bergaul; tidak luwes)

- Sikap budi yang kaku disebabkan oleh didikan ayahnya yang seorang militer.

부디씨의 강직한(곧은) 성품은 군인이 아버지의 교육 때문이다.

Kikuk = Ki. kuk 익숙하지 않음, 어색함을 표현하는 단어 입니다.

canggung; belum pandai; belum biasa

- Budi merasa sangat kikuk bila harus memperkenalkan diri di depan umum.

부디씨는 대중 앞에서 자기 소개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색(익숙지 않다) 하다.

Segan = Se. gan = 게으르거나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또는 타인에게 언짢게 하는 것이 싫어서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망설이는 것을, 어색해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다.

- 1 malas (berbuat sesuatu); enggan; tidak sudi; tidak mau; tidak suka;
- 2 merasa malu (takut, dan hormat), Segan adalah perasaan khawatir kalau tindakan yang akan dilakukan adalah kurang pantas dan akan menyinggung orang lain)

- Pak Joko adalah orang terpandang di daerah itu, sehingga masyarakat daerah itu merasa segan kepada beliau.

조끄씨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지역민들이 그에게 나서는 것을 망설(부끄러워)인다.

Sungkan = Sung. kan =Segan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며 마음 내키지 않아서 싫거나 반대하는 마음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자와어로는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기도 한다.

- 1 malas (mengerjakan sesuatu); enggan;
- 2 merasa tidak enak hati;
- 3 menaruh hormat; (KBB)

- Budi merasa sungkan menerima tawaran makan malam dari Pak Joko.

부디씨는 지난밤 조끄씨의 제안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내키지 않는다)



화제의 도서를 소개합니다!!



거의 모든 인터넷의 역사

정지훈 저 | 메디치미디어

우리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인터넷 혁명의 순간들

IT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정지훈 교수는 인터넷 및 IT와 관련된 최근의 부조리한 사회적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인터넷의 역사와 근본철학, 문화적인 가치를 알려야 할 때라고 절실히 느끼며 이 책을 집필하였다. 2차대전 당시 서서히 태동되었던 사이버철학과 60, 70년대 놀라운 기술적 성과를 보여준 위대한 공로자들, 그리고 이후 웹이 만들어진 뒤 우리가 익히 들었던(혹은 전혀 몰랐던) 다양한 인물과 사건, 미래의 인터넷을 향한 사회·문화적 의미까지 짚어본다.



죽어라 일만 하는 사람은 절대 모르는 스마트한 성공들

마틴 베레가드, 조던 밀른 공저/김인수 역 | 걷는나무

잘 쉬는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한다

이 책은 그중에서도 무일푼으로 전 세계 1% 백만장자 대열에 오르고 삶의 행복도 포기하지 않은 세계 최고의 기업가 25인을 롤 모델로 선정해 즐겁게 일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성공하는 노하우를 담았다. 이 책은 영국 언론의 극찬 속에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려 주는 책’이라는 평을 받으며 영국 공인경제경영연구소와 영국 국립도서관이 뽑은 ‘2013/2014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반기문, 나는 일하는 사무총장입니다.

남정호 (지은이) | 김영사, 396쪽, 1만6천원

대한민국 청년들이 존경하는 멘토 1위이자 2007년 PIPA 월드 퍼블릭 오피니언 조사 결과에서 세계 주요 지도자 중 신뢰도 1위를 차지한 인물은 다름 아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다. 남정호(중앙일보) 국제선임기자가 뉴욕 특파원 시절, 유엔 본부를 담당하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활약을 가장 가까이에서 밀착 취재한 ‘반기문, 나는 일하는 사무총장입니다’를 펴냈다. 저자는 이 책에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밟으며 반기문의 치열한 고민과 카리스마, 인간적인 흡인력을 가감 없이 기록했다. 2014 노벨 평화상 후보, 차기 대권지도 1위, 유엔에서의 7년, 반기문의 통찰과 전략을 밀착 취재한 단 하나의 기록. 제대로 일하고, 결과를 만드는 리더, 가려져 있던 반기문 리더십의 실체를 공개한다.

전투육아

서현정 저 | 한빛라이프

웃겨 죽거나 죽도록 웃기거나, 엄마들의 폭풍성장 코믹육아노와르

하루 종일 먹이고 채우고 기저귀를 갈고 놀아 주다 보면 나만의 시간커녕 밥 먹는 것도 깜빡 놓치고마는 엄마들의 폭풍 같은 육아기를 적나라하게 증계한다. 그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아이와 잘 놀아 주고, 그 누구보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지만 지치고 힘든 현실에 무너지고 타협하고 자책하고 갈등하는 엄마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냈는데 이상하리만큼 웃기다. 한없이 웃기다. 한마디로 웃음 폭발이다. 가끔은 가슴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쏙 빠져 나오지만 어느 순간 또 웃기다.



남미의 10가지 매력

박재영 저 | 슬로레빗

멀지만 가까운 세상, 남미가 내 손 안에 들어오다

비행시간만 30시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는 쉽게 떠날 수 없는 미지와 동경의 대륙이다. 페루의 마추피추, 볼리비아 우유니, 칠레 아타카마 등등 유명한 여행지를 TV 영상에서 접하기도 하지만, 남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매력에 비하면 그것들은 티끌에 불과하다. 빙하, 설산, 화산, 고원, 사막, 호수, 바다, 초원 등등 대자연이 만들어 낸 풍경은 또 다른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며 여행자의 심장을 두드린다.



잘 다녀와요, 오늘도 행복하기를

김인숙 저 | 지식너머

김인숙 글라라 수녀의 행복 산문집

김인숙 수녀는 가난한 청소년들의 전인교육에 헌신하는 살레시오 수녀회 소속 수녀이자 작가이다. 그동안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냈는데 이번에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도자로서 살아가는 소박한 일상을 책에 담아 삶의 희망과 소중함에 대해 담담하게 풀어냈다.



도서 관련 문의 : YES24인도네시아 이준호
021-2902-1714(직통105) / 0815-830-3543 /
help@yes24.co.id / www.yes24.co.id

2014년 한인회 임원찬조금 명단

11월6일현재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 액	
					USD	IDR
1	한인회 명예회장	승 은 호	PT. KORINDO GROUP	2014	20,000	
2	한인회 명예고문	김 재 유	PT. DONG SUNG	2014	5,000	
3	한인회 회장	신 기 엽	PT. HANINDO EXPRESS	2014	20,000	
4	한인회 수석부회장	조 규 철	PT. DONG JUNG IND.	2014	10,000	
5	한인회 수석부회장	배 도 운	PT. DOOSAN CIPTA BUSANA	2014	10,000	
6	한인회 부회장	강 희 중	PT. SUNG TECHNOLOGY	2014	5,000	
7	한인회 부회장	김 희 년	PT. E-TRADING	2014	5,000	
8	한인회 부회장	김 영 옥	PT. GAYA INDAH KHARISMA	2014	5,000	
9	한인회 부회장	김 주 철	PT. STAR CAMTEX	2014	5,000	
10	한인회 부회장	김 준 규	PT. CIPTA ORION METAL	2014	5,000	
11	한인회 부회장	박 재 한	PT. BUSANA PRIMA GLOBAL	2014	5,000	
12	한인회 부회장	엄 정 호	PT. ING INTERNATIONAL	2014	5,000	
13	한인회 부회장	이 지 현	PT. ZIMMOAH MARINE	2014	5,000	
14	한인회 부회장	이 진 수	PT. SUNGBO JAYA	2014	5,000	
15	한인회 부회장	이 호 덕	PT. VICTOR JAYA RAYA	2014	5,000	
16	한인회 부회장	최 광 수	PT. BIG STAR	2014	5,000	
17	한인회 부회장	최 상 학	BANK WOORI	2014	5,000	
18	한인회 부회장	황 의 상	PT. INHWA INDONESIA	2014	5,000	
19	한인회 자문위원단 의장	배 상 경	PT. TEBO AGUNG INTERNATIONAL	2014	2,000	
20	한인회 자문위원	강 덕 재	PT. LEMBU SWANA PERKASA	2014	1,000	
21	한인회 자문위원	김 문 환	PT. KASINDO GLOBAL UTAMA	2014	1,000	
22	한인회 자문위원	김 병 철	PT. MISUNG INDONESIA	2014	1,000	
23	한인회 자문위원	김 석 래	PT. INACON LUHUR PERTIWI	2014	1,000	
24	한인회 자문위원	김 영 만	PT. KIPCO UTAMA ENERGY	2014	1,000	
25	한인회 자문위원	김 영 주	PT. DEWA CITRA SEJATI	2014	1,000	
26	한인회 자문위원	김 우 재	PT. KOIN BUMI	2014	1,000	
27	한인회 자문위원	박 동 희	PT. TRIKARYA ALAM	2014	1,000	
28	한인회 자문위원	박 헌 식	PT. DONGAN KREASI	2014	1,000	
29	한인회 자문위원	석 웅 치	PT. DAYUP INDONESIA	2014	1,000	
30	한인회 자문위원	송 재 선	PT. PUTRA HANKUK	2014	1,000	
31	한인회 자문위원	양 영 연	PT. BOSUNG INDONESIA	2014	1,000	
32	한인회 자문위원	이 승 민	YSM & PARTNERS	2014	1,000	
33	한인회 자문위원	이 진 호	PT. JIN YOUNG	2014	1,000	
34	한인회 자문위원	이 현 상	PT. ROYAL KORINDAH	2014	1,000	
35	한인회 자문위원	정 무 응	코린도 장학재단	2014	1,000	
36	한인회 자문위원	조 용 준	CV. TIGA BINTANG JAYA	2014	1,000	
37	한인회 자문위원	최 정 남	PT. GLOBAL FIBERINDO	2014	1,000	
38	한인회 자문위원	하 연 수	PT. SEOLIN	2014	1,000	
39	한인회 자문위원	현 상 범	PT. INAMEN JAYA	2014	1,000	
40	한인회 이사	강 주 석	PT. SERIM INDONESIA	2014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납입연도	금 액	
					USD	IDR
41	한인회 이사	강 호 성	PT. ANUGRAH CIPTA MOULD SHOP	2014	1,000	
42	한인회 이사	구 자 성	일요신문	2014	1,000	
43	한인회 이사	김 경 곤	PT. SUKWANG INDONESIA	2014	1,000	
44	한인회 이사	김 경 국	PT. NES	2014	1,000	
45	한인회 이사	김 도 상	PT. HONGIK INDONESIA	2014	1,000	
46	한인회 이사	김 문 호	PT. DADA INDONESIA	2014	1,000	
47	한인회 이사	김 상 태	PT. SMS GROUP	2014	1,000	
48	한인회 이사	김 성 국	PT. TRISTAN RESOURCES	2014	1,000	
49	한인회 이사	김 세 형	PT. BTEXB INDONESIA	2014	1,000	
50	한인회 이사	김 수 용	PT. NOBLE INDONESIA	2014	1,000	
51	한인회 이사	김 종 헌	PT. KOIN BUMI	2014	1,000	
52	한인회 이사	김 희 익	PT. EPS INDONESIA	2014	1,000	
53	한인회 이사	노 승 원	PT. SGWICUS INDONESIA	2014	1,000	
54	한인회 이사	노 예 범	PT. SAM PUTRA INTI	2014	1,000	
55	한인회 이사	박 성 대	PT. HANJIN INDONESIA	2014	1,000	
56	한인회 이사	배 정 옥	PT. AGRI TRADING INVESTMENT	2014	1,000	
57	한인회 이사	서 영 룰	PT. PRATAMA ABADI	2014	1,000	
58	한인회 이사	송 판 원	PT. KORYE POLIMER	2014	1,000	
59	한인회 이사	신 규 태	PT. INDO SUNGIL JAYA	2014	1,000	
60	한인회 이사	신 만 기	PT. PARKLAND WORLD	2013	1,000	
61	한인회 이사	안 상 영	PT. DAEHWA LEATHER LESTARI	2014	1,000	
62	한인회 이사	안 선 근	U.I.N UNIVERSITY	2014	1,000	
63	한인회 이사	안 흥 제	PT. KOLON INA	2014	1,000	
64	한인회 이사	양 시 완	PT. KISWIRE BALARAJA	2014	1,000	
65	한인회 이사	양 태 화	PT. BOSUNG INDONESIA	2014	1,000	
66	한인회 이사	오 세 명	PT. SUNG LIM CHEMICAL	2014	1,000	
67	한인회 이사	유 주 완	PT. FEEL BUY	2014	1,000	
68	한인회 이사	윤 석 환	PT. SUNG SHIN INDONESIA	2014	1,000	
69	한인회 이사	이 상 일	PT. U I B	2014	1,000	
70	한인회 이사	이 소 왕	L S W	2013	1,000	
71	한인회 이사	이 옥 찬	PT. KORINA SEMARANG	2014	1,000	
72	한인회 이사	이 지 완	PT. JIN YOUNG	2014	1,000	
73	한인회 이사	이 창 훈	PT. KIDECO JAYA AGUNG	2014	1,000	
74	한인회 이사	이 철 훈	PT. INDO BOX UTAMA JAYA	2014	1,000	
75	한인회 이사	임 성 용	PT. MIRINA NUSANTARA	2014	1,000	
76	한인회 이사	정 철 주	PT. DONG IL	2014	1,000	
77	한인회 이사	조 호 신	PT. SONERGY	2014	1,000	
78	한인회 이사	차 상 만	PT. HANKOOK CERAMIC	2014	1,000	
79	한인회 이사	홍 기 호	PT. AURORA WORLD	2014	1,000	
80	한인회 이사	황 윤 흥	자카르타경제일보사	2014		11,675,000
총 금액					\$192,000	Rp11,675,000

2014년 한인회 개인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명단 (접수순)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 액	
			IDR	USD
1	이 지 현	2014	6,000,000	
2	김 주 철	2014	3,000,000	
3	이 종 후	2014	1,000,000	
4	백 승 래	2014		200
5	손 용	2014	300,000	
6	임 성 용	2014	300,000	
7	이 승 민	2014	300,000	
8	김 재 민	2014	300,000	
9	신 기 엽	2014	300,000	
10	강 희 중	2014	300,000	
11	강 덕 재	2014	3,300,000	
12	김 원 모	2014	300,000	
13	권 영 동	2014	300,000	
14	김 일 태	2014	300,000	
15	이 소 왕	2014	300,000	
16	이 완 주	2014	300,000	
17	이 효 옥	2014	300,000	
18	정 재 호	2014	300,000	
19	최 건 호	2014	300,000	
20	최 문 종	2014	300,000	
21	홍 석 진	2014	300,000	
22	홍 훈 섭	2014	300,000	
23	김 섭	2014	300,000	
24	김 종 주	2014	300,000	
25	오 세 윤	2014	300,000	
26	김 현 동	2014	300,000	
27	백 승 명	2014	300,000	
28	윤 석 환	2014	300,000	
29	이 기 열	2014	300,000	
30	이 정 호	2014	300,000	
31	최 호 영	2014	300,000	
32	황 재 규	2014	300,000	
33	한 기 환	2014	300,000	
34	배 희 윤	2014	300,000	
35	이 봉 규	2014	300,000	
36	이 원 만	2014	300,000	
37	박 정 호	2014	300,000	
38	양 영 연	2014	300,000	
39	배 영 태	2014	300,000	
40	최 철 우	2014	300,000	
41	김 영 수	2014	300,000	
42	이 일 하	2014	300,000	

번호	성명	납입연도	금액	
			IDR	USD
43	이수진	2014	300,000	
44	장방식	2014	300,000	
45	조규철	2014	300,000	
46	최양기	2014	300,000	
47	엄종한	2014	300,000	
48	no name	2014	300,000	
49	오세명	2014	300,000	
50	김세형	2014	300,000	
51	서울메디칼	2014	300,000	
52	김도상	2014	300,000	
5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500,000	
54	김영울	2014	300,000	
55	김창근	2014	300,000	
56	김대근	2014	300,000	
57	조용재	2014	300,000	
58	이재원	2014	300,000	
59	ROTC 김수용	2014	300,000	
60	ROTC 김홍규	2014	300,000	
61	ROTC 최형욱	2014	300,000	
62	ROTC 김광석	2014	300,000	
63	ROTC 김기주	2014	300,000	
64	ROTC 목의수	2014	300,000	
65	ROTC 김성주	2014	300,000	
66	ROTC 이시현	2014	300,000	
67	최우범	2014~2018	1,500,000	
68	신규태	2014~2015	600,000	
69	김영필	2014	300,000	
70	김종헌	2014	300,000	
71	임성필	2014	300,000	
72	이지완	2014	300,000	
73	강영균	2014	300,000	
74	이현식	2014	300,000	
75	서준형	2014	300,000	
76	김경국	2014	300,000	
77	김우재	2014	300,000	
78	강희중	2014	300,000	
79	박헌식	2014	300,000	
80	현상범	2014	300,000	
81	장인욱	2014	300,000	
82	조호신	2014	300,000	
83	이순형	2014	300,000	
총 금액			Rp39,400,000	\$200



Harlequin Shrimp (Bitung Lembe, Indonesia)

Pasti kau sibuk bermain dibalik karang itu
bercanda di alam khayalmu...
membawa bekal senyum
untuk tidurmu nanti...



Creative Director
President Director
Tae-Joong. Rhee

PT. INNOMATE Think the Unthinkable!

A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T +62. 21. 7919. 2006(Rep.) **F** 070. 4644. 2280(Dir) **M** +62. 21. 7919. 2062
M 0812. 1011. 1000 / 0822. 2110. 2922 **E** jasoncpu@gmail.com
Design Division **A** 4F Dongsung Bldg, 7-27, Chungdam-dong, Gangnam-gu, Seoul, 135-949, Korea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한인단체

제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한인회	5532 5555
반동한인회	022 2021566
발리한인회	0361 723 070
동부자바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한인회	0266 736 441
중부자바한인회	0298 522 587
메단한인회	0811 608 724
족자한인회	0274 376 741
바탐한인회	0778 392 01
보고르한인회	0251 7782 2959
찌까랑한인회	8990 9917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국악사랑단체	0811 90 2003
즈빠라한인회	0291 598593
(총무 조영성)	0813 90323355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0815 1071 0023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	780 7313

●유치원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	---------------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In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021-7278-0704 Fax: 021-7278-8330

가나 한식당
KANA 가나 RESTOLOUNGE

EVENT 대환영

· 돌잔치, 회식, 신년회, 송년회
 · 도시락 픽서비스, 케터링

토요일/일요일 20%특별할인

- 북요리 / 북저리 / 북매운탕
 - 흥어삼합 (적수입 흥어) 3가지의 어우러진 독특한 맛
 - 가나 BBQ
 삼겹살, 생갈비, 불고기, 우설구이, 장어구이, 오리로스
 - 점심특선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 1 Jakarta
 Phone : 2520077 , 5710909
 HP : 0811 918 132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佳肴 최상의 재료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그 이름에 남아 모시겠습니다

佳肴 Gahyo

(021)9127-2262
 SCBD Jl. Jend. Sudirman Kav. 52-53 Lot. 6 Jkt
 (021)4587-6626
 Sport Mall Kelapa Gading Blok A 26-27 Jkt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동문회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민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중고(김정옥)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종)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918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김인환)	0813 1572 188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송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4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아침을 깨우는 신문"

자카르타경제신문
아침 Pagi .co.id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의 온라인 신문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더 빠르고 생생한 인도네시아 소식과 한인동포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외환은행	574 1030
우리은행	515 1919
하나은행	522 0222~3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20 0240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Adhi Graha (Surveyor Indonesia)
Jl. Jend. Gatot Subroto Kav.56, Jakarta 12950
15th Floor Suite 1503
Tel. 62-21-2941-0780 (hunting) Fax. 62-21-2941-0775
E-mail: doowang@cbn.net.id, doowangjkt@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데름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조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캘러리 581 4690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멜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설비 전기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짜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짜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JUNO 유니폼 전문업체

유니폼 주문제작

- * 회사 유니폼, 작업복, 티셔츠, 모자, 가방 및 단체복 주문 /생산합니다.
- * 인도네시아 전 지역 신속 정확하게 운송해 드립니다.
- * 방전복 등 특수복 제작 가능합니다.
- * 바틱 맞춤

Marketing: (021) 888-52369
HP: 0816-183-4699
Factory: Bekasi Barat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Sudirman)	9127	2262
가호(Kelapa Gading)	4587	6626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권명희복집	720	746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카시서울(버카시)	8895	7604

부산Hits(끌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라식(버카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팔레스	(024) 447	414
소양(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끌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5140	1245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본가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수대	726	4570

장터(끌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아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아하우스(반동)	(022) 203	1626
코리아우스(Hits)	844	5877
타임(까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끌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3334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끌라빠가딩)	453	3033
한술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끌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끌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BBQ(골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86	9199
일요신문	452	5655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일보	5290	0117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3192	4449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LIG 손해보험	391	3101

●건설링

글로벌건설링	7280	0524
누비라건설링(리브찌까랑)	8990	0088
두왕건설링	520	7153
새천년건설링	5290	0040
우리건설링	7918	4239
건설링 21	799	6182
퓨릭건설링	5596	3213
한생건설링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	-----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하숙

경복궁하숙(리브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1514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브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썬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0818	901 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	------	------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가카데미	7590 5773
에쎄드라아트스쿨(리포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한인예총

(회장 김문환)	0811 901983
미술협회(이은수)	0821 1414 2244
음악협회(김순재)	0856 1376 677
어린이합창단(안영수)	0811 900 5639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9868 9802
서예협회(제종경)	0811 8304 77
월화차문화원(이선주)	0821 11794242
색소폰동우회(배종문)	0816 881423
문인협회(사공경)	0816 1909976
한바패(박형동)	0811 149 586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민영기)	0811 177503
국악사랑(장방식)	0811 902003
헤리티지(이수진)	0816 1300 210
색동회(강희중)	0816 798221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클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창립 20주년 행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0주년 감사 특별할인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보장 ◆ 금 매입·매각 가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0888-110-2022

본 점(수출/무역)

HP.0816-873-176
HP.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수출 수입 대행 전문회사
PT. SJ GLOBAL INDONESIA**

- 수출대행 : 모든 품목
(단 수출 금지품목 제외)
- 수입대행 : API-U 가 없거나,
있더라도 품목허가가 없는 경우
(공산품 대부분의 수입허가 보유)

전화 : 021)290 99 865
HP)081 389 333 739
E-Mail : charles@sj-global.co.kr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발 리 (지역번호 0361)

●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 3793 9452
--------	----------------

●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	---------

●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	---------

●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	---------

●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셔널라운지	759 368

●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파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안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008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따 공항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1)692 8515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 한인회.....021)521 2515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공항).....021)550 23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 항공(시내).....021)5721 381~3
(공항).....021)5591 3229

싱가폴항공.....021)570 4411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47

수도고장 문의.....021)57986555

KORINDO Plants the Green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사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Green Tomorrow

파푸아 오일팜 농장
Asiki, Papua Indonesia



Haesley Nine Bridge

THE PROFESSIONAL INTERIOR COMPANY

인테리어 전문회사 이노메이트

“Think the Unthinkable!”

다른 생각 ; 다른 행동 ; 다른 결과 ; 앞서서 남다름!!

TtU는 마인드 행동양식, 표현방식 등 기존의 모든 것을 개혁하려는 이노메이트의 핵심입니다.!



The reception area:the sailing-boat-like reception desk visualises the value-thinking IBM lives by.



KBS Media Center

All the designs are completed by specialists!

이노메이트는 최고의 전문성으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고객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공간을 디자인합니다!

- Office Design / Hospitality Design / Retail Space Design
- Residential Design / Cultural Space & Exhibition Design
- Transportation Space / Medical Space
- Educational training facility / Overseas Projects

Creative human space design **INNOMATE**

14F, SME-Tower, Jl. Jend. Gatot Subroto Kav 94, South Jakarta, 12780 / Rep. 021. 7919. 2006 / IP. 070. 4644. 2280 / M 0812. 1011. 1000
이노메이트의 수익금의 일부는 JKS(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고객의 명의로 장학금으로 기부 예정입니다.



30년의 선물

이 검은 돌이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아십니까

수 천 만년 땅 속에 묻혀있던 이 검은 암석들이
KIDECO의 기술로 이 땅으로 나오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사는 도시 구석구석으로
따스한 빛과 열기가 되어 다닙니다.

참으로 긴 세월, 지난 30년-
자원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누빈 사람들, **KIDECO**
우리의 열정과 독심이 당신의 삶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The Most Reliable Coal Supplier**
PT. KIDECO JAYA AGUNG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삶 속에
KIDECO가 함께합니다.

KIDECO는,

동부 깔리만탄 Paser에서 생산량규모 세계 5위권의
유연탄광 파시르 광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우량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  **PT. KIDECO JAYA AGUNG**

